금주의 법구-〈법구경〉
우리의 몸은 마른 섶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제 몸을 태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9월 18일)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서산 부석사 관음상 결국 다시 일본으로

10월 26일 대법원 1부 상고 기각
2심과 달리 부석사 권리 주체 인정
국제사법에 따라 일본 민법을 적용
日대마도 관음사 취득시효 인정해
원우스님 "패륜적 판결" 울분 토해
조계종 "반역사적 최악 판례" 성토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이 결국 우리의 품으로 환지본처되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월 26일 2호 법정에서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약 7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부석사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2심과는 달리 관음상이 제작 · 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瑞州)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권리 주체임은 인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서주 부석사가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유지한 채 존속하여 원고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서주 부석사와 원고를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 고 본 2심판결에 사찰의 실체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제사법 부칙 등에 따라 관음상 소유에 대한 준거법이 일본 민법이 적용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마도 관음사가 관음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1953년 이후 20년이 지났고 취득 시효가 완료됐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시효기간 만료 시점에 관음상이 소재하던 일본의 민법이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된다"며 "대마도 관음사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당시 일본의 민법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인정된 상황에서 서산 부석사가 관음상의 원소유주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판결에 서산 부석사 측은 "패륜적 판결"이라고 대법원 재판부를 강하게 힐난했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600년 전 이 땅에는 관세음보살님을 지키다가 쓰러져간 고려인들이 있었다.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은 그들의 등에 다시 칼을 꽂았다"며 "이것은 패륜적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스님은 "대법원은 무력 ·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 해줬다. 이것은 야만적 판결이다. 저희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어떻게 고려인의 후손인 우리가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온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상임대표는 "안타깝고 몰지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악의적 취득과 점유를 인정한 사례는 국제적으로 많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재판부가 한걸음 더 나아가지 않고 전근대적인 판단을 했다.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점유 기간이 인정된다는 법적인 논리만 형성되면 문화재들을 환수할 길이 없다"면서 "문화유산 회복에 있어서 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돌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도 대변인 우봉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약탈돼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일 뿐 아니라,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며 "우리 종단은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불교미술 명장 한자리… 불미전 개막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대회장 진우 · 조계종 총무원장)는 10월 25일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제32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불미전에는 회화 93작품, 조각 18작품, 공예 34작품, 미디어 아트 13작품 총 158작품이 출품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45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시대를 반영한 미디어 아트 부문이 신설돼 첫 수상자를 배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미디어 아트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염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관람하고 있는 모습. 글=신중일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후보 정여 대종사 추대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문중 화합 노력" 밝혀

금정총림 범어사 새 방장후보에 조계종 원로의원 정여 대종사〈사진〉가 추대됐다.

범어사(주지 보운)는 10월 26일 경내 보제루에서 방장 추대를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추천된 정여 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새 방장후보에 추대했다. 산중총회에는 377명의 구성원 가운데 241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산중총회에 참석한 정여 대종사는 "여러분의 뜻을 잘 수용하고 문중별 의견을 받들어 원만한 소임을 살도록 하겠다"며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으로 어른스님들을 잘 모시겠다"고 인사했다.

정여 대종사는 산중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은 소납을 차기 방장후보로 추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 범어사 문중화합을 위해 많이 노력할 것"이라며 "범어사와 부산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더 심사숙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여 스님은 1975년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김천 수도암과 현풍 도선암 등 제방선원에서 7년 결사를 성만하고, 봉암사와 대흥사, 백담사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스님은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부산불교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여여선원 선원장, 세상을향기롭게 대표, 조계종 법계위원 등을 맡고 있다. 2005년엔 제17회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한바 있다.

총림을 대표하며 지도감독권을 갖는 방장은 산중총회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 산중총회에선 산중 고유의 방식으로 방장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방장은 선 · 교 · 율을 겸비한 법계 대종사급, 승랍 40년 이상의 본분종사 자격이 필요하다. 임기는 10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여 대종사의 방장 추대는 11월 1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국대 WISE캠 총장 후보자 4인 확정

동국대 WISE총추위 2차회의서
오는 11월 6일 소견발표회 개최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후보 대상자가 4인으로 확정됐다.

동국대 WISE총추위(위원장 범해)는 10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후보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견발표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동국대 WISE총추위는 총장 후보대상자로 △구본철 글로벌사회경영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류완하 스마트시티융합대학 디자인미술학과 교수 △박용기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교수 △서운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교수(이상 가나다순)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WISE총장후보대상자들의 소견발표 방법과 일정을 의결했다.


구본철


류완하


박용기


서운교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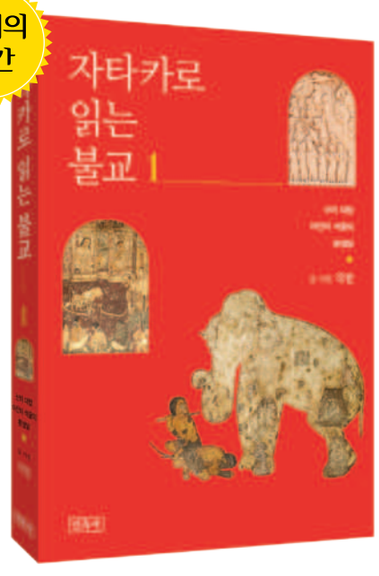
소견발표는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중계를 한다. 온라인 중계는 동국대 WISE캠퍼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후 WISE총추위는 11월 7일 전체회의에서 WISE총장후보자를 선출해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신중일 기자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본생담 자타카로 읽는 불교 1

화제의 신간



부처님의 본생담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의 저자 각전 스님의 역작!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석벽에 그려진
본생담의 내용에 환희와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본생담의 스토리텔링의 힘은 대단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글 · 사진 각전 | 350쪽 | 23,000원

각전 스님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정치철학 전공)를 졸업하였다. 39회 행정고시 합격,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출가를 단행하였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 직지사 선원 등에서 정진하였으며, 대장경 천년 축전 해인사 준비위원, 〈해인〉지 편집장을 잠시 맡아 활동하다가 다시 선원으로 돌아와 수행,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 미얀마의 쉐우민 국제명상센터에 다녀왔다. 현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법주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의 여가에 법보신문에 '각전 스님의 본생담으로 읽는 불교', 월간 불교문화에 '각전 스님의 부처님 성지 순례'를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인도 네팔 순례기》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불자교수 만난 자승 스님 "전법 적극 지원"

10월 21일 동아리 교수 오찬
전법 현장 어려움 들으며 소통
"불교동아리 年 3천만원 지원"
동아리 지도교수 간담회 개최
이상훈 교수 "문화로 다가가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10월 21일 서울 강남 봉은사 구생원에서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들과 오찬을 가졌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연간 3000만원의 동아리 활동비 지원 등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10월 21일 서울 강남 봉은사 구생원에서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들과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과 김기봉(경기대)·박치완(한국외대)·김용진(경상국립대)·장상목(동아대)·김현효(공주대)·송윤미(강원대)·김성천(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오찬에서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1교구-1대학 불교 동아리 설립을 목표로 삼고 24개 교구본사에서 1년에 30개 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을 추진한다"면서 "대학 불교동아리에 연간 활동비 3000만원을 지원하려 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동아리 구성원 모두가 소신껏 전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동아리 회원과 불자기업을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자승 스님은 "신행을 열심히 하고 학업 성적도 우수한 학생은 한국사회와 불교의 미래 인재"라며 "이들이 장학금도 받고, 불자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11일 코엑스에서 '사부대중 전법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전법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전법기금을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도교수들도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김현호 공주대 교수는 "마곡사의 지원으로 최근 불교동아리가 다시 창립됐다. 현재 61명의 학생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라며 "학교에 불교동아리가 창립되니 이에 영향을 받아 불자 교수회도 생겼다. 전법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미 강원대 교수는 "현재 불교학생회는 동아리실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승 스님께서 대학생 전법을 강조해주셔서 힘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에 앞장서 활동하는 불자교수들이 봉은사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희망을 느낀다. 앞으로도 대학생 전법에 대한 기탄없는 조언을 바란다. 상월결사와 '원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오찬 후 자승 스님은 미리 준비한 단주를 교수들에게 일일 걸어주며 배웅했다. 오찬을 마친 교수들은 봉은사 향적원으로 자리를 옮겨 '대학생 전법을 위한 불교동아리 지도교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대학생 전법 선언과 불교동아리의 재탄생'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대학생 전법의 필요성과 전법 노하우를 설명했다. 이상훈 회장은 해체 위기까지 갔던 대전대 불교동아리 '유심회'의 명맥을 되살렸고, 현재도 지도교수로 활동 중이다.

그는 학생이 불교를 소비하는 주체로 생각하고 그들의 니즈(needs)부터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학생들은 불교를 종교로만 느끼지 않는다. 이들이 불교를 문화로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간담회에 참가한 40여 명의 교수가 각 대학별 불교 동아리 상황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전법 방안들을 소개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불교가 공허함 위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
오체투지·추모법회 등 아픔 나눠
진우 스님 "종지협 메시지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정민 운영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한순간 싸늘한 주검이 된 가족을 맞아야 했던 희생자 유가족들이 연신 눈물을 흘리며 불교계에 감사를 전했다.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법회부터 기도회,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오체투지, 10·27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종단 차원에서 마련한 49재까지. 사고 직후부터 아픔을 함께 나눠준 불교계가 고마웠다.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0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민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주영 아버지), 송후봉(송은지 아버지), 이성환(이상은 아버지), 김호경(김의현 어머니), 김화숙(김현수 어머니) 씨가 참석했다. 사회부장 도심 스님,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 부위원장 고금 스님, 양한웅 집행위원장도 배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간다. 비극적 참사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안타깝다"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스님은 이어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니 이젠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져 남은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정치권이 합의를 잘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 조계종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자식들을 갑작스레 보내고 공허함이 너무 컸는데, 아이들을 위해 불교계에서 49재까지 열어줘 많은 위로와 위안을 얻었다"며 "불자가 아닌 유가족들에게도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인사했다.

이날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초청장을 전하며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는다. 스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발표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 7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을 맡고 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해 위로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화숙 씨는 스님의 진심어린 위로에 연신 눈물을 훔치며 큰절을 올렸다. 앞서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가 봉안된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헌화와 절을 하며 고인들을 추모했다.

김내영 기자

봉은사·보문사 주지 원명·선조 스님 재임

총무원장 진우 스님 "사찰관리에 최선을" 당부


원명 스님


선조 스님

조계종 직영사찰 서울 봉은사와 강화 보문사 주지에 현 주지인 원명 스님과 선조 스님이 재임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3일과 25일 원명 스님을 봉은사 주지로, 선조 스님을 보문사 주지로 각각 재임명했다.

진우 스님은 23일 봉은사 주지 임명식에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사찰 중에서 신도활동이 가장 활발한 만큼 가람 수호와 수행정진, 신도포교 등 모든 부분에서 정성 들여 사찰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그동안 주지(사찰관리인) 역할을 잘 수행한 만큼 다시 한 번 맡은 소임에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원명 스님은 "종단 직영사찰로서 위상에 걸맞도록 종단 외호와 사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25일 선조 스님에게 "보문사는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음성지로 기도와 대중포교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며 "선조 스님은 그동안 보문사를 잘 이끌어 오신 만큼 앞으로도 사찰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조 스님은 "종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정진하는 마음으로 사찰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에 남전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에 남전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10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남전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선업 스님은 "남전 스님을 부장으로 모시면서 포교전문가 집단이 된 것 같아 든든하다"면서 "신임 포교부장스님은 포교국장을 역임한 만큼 모든 영역에서 여러모로 잘 살피기 바라며 포교원이 꼭 해야 할 일들에 전문성을 적극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전 스님은 "포교국장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포교원에서 해야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포교원장스님과 교역직 스님들, 종무원들을 잘 모셔 열심히 일하는 포교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전 스님은 대운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다. 동국대 졸업 후 포교원 포교국장, 총무원 총무국장, 기획국장, 조계사 선림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정혜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조계종 종관위,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

10월 24일, 제128차 회의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오심)는 10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28차 회의를 열었다. 종관위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추천 관련과 관련해 성월 스님 후임으로 진화 스님(제18대 중앙종회의원)과 중현 스님(증심사 주지)을 복수 추천했다.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 후임으로는 원명 스님과 해량 스님(상원사 주지)을,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 후임으로 호산 스님과 보관 스님(수국사 주지)을, 경우 스님(선운사 주지) 후임으로 경우 스님과 현적 스님(선운사 총무국장)을 추천했다.

9월 4일 개최된 126차 회의에서 보류된 정문 스님 후임으로는 성행 스님(청계사 주지)과 성요 스님(청명사 주지)을 추천했다. 이와 함께 감사 담화 스님의 사직으로 인한 후임에는 법성 스님(신륵사 주지)과 법수 스님(신륵사 총무국장)을 추천했다.

종관위는 이날 학교법인 승가학원 교육이사도 추천했다. 2024년 2월 6일 임기가 만료되는 혜도 스님 후임으로 동국대 불교학부 조교수 정완 스님과 한남대 강사 경완 스님을 추천했다.

임은호 기자



16개국 한국전쟁 참전용사 넋 기리다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 맞아 세계평화 기원

정전 70주년 평화기원 수륙재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참석
尹 "수륙재 계승에 더욱 관심"
참전용사 위패 모셔 시련의식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선시대 왕실차원에서 국태민안을 발원하기 위해 설행해온 진관사 국행수륙재가 정전 70주년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을 맞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고혼을 기리는 추모의 법석으로 회향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과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는 10월 21일 진관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 기원을 위한 수륙재 및 기념식' 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종회의장 주경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 오세훈 서울시장, 강병원 · 김병주 국회의원,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를 비롯한 12개국 대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진관사 수륙재보존회의 사방요신으로 재의 시작을 알린 행사는 내빈들의 헌향 · 헌다 · 헌화로 이어졌다.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국행수륙재의 무차평등 가치를 강조했다. 스님은 "진관사에서 올리는 국행수륙재가 70여 년 전 한반도에서 죽어간 고혼들의 넋을 달래고 해원함으로써 나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시발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국행수륙재의 공덕이 하늘을 움직이고 땅과 바다에 두루 전해져 우리 민족은 물론 인류 전체가 화합하고 상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환영사에서 "수륙재는 온 세계의 모든 대상을 차별 없이 청해 공양하는 의례이자 무차평등 정신이 가장 잘 구현된 의례"라면서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사그라들기를 기원하며 '대자비심으로 꽃피우는 생명과 평화의 기도' 로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전 세계 참전용사들의 넋을 달래는 국제적인 의미가 담긴 만큼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축사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전병극 문체부1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국행수륙재를 통해 우리의 호국불교 정신이 세계시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 역시 국행수륙재의 가치가 더욱 바람직하게 계승되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참전국 대사를 비롯해 많은 외국인들도 함께한 자리. 기념식에선 대사들이 한국전쟁에서 산화한 각국 희생자들의 위패를 직접 이운하며 의미를 더했다. 16개 참전국을 대표해 단상에 오른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70년 전 6.25전쟁은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모았다"며 "모든 참전국과 대한민국에 평화와 안보, 번영을 기원한다. 전사자와 참전자의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주지 법해 스님을 필두로 한 봉송행렬.

이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강병원 · 김병주 국회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수륙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온전히 계승되길 기원했다. 또한 행사에 동참한 대중은 손용준 · 김은빈 진관사 청년대표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뭇 생명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발원했다.

진관사는 이날 전쟁피해자 구호기금 3000만원과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쌀 2000kg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하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종식을 염원했다.

이후 기념식은 인로왕번기와 취타대, 영가를 태울 가마 등으로 구성된 봉송행렬의 낮재로 이어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주지 법해 스님 등이 선두에서 행렬을 이끌고 해탈문을 지나 일주문에서 영가를 맞이하는 시련의식을 올렸다. 집전은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과 어산종장 동환 스님 등이 맡았다.

"구름이 덮친다고 산 넘어지나"

성파 종정예하,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법문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말이 맞고 스스로 잘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란을 초래하고 말세가 될까봐 얼마나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청산(靑山)은 원부동(元不動)이요 백운(白雲)은 자거래(自去來)라. 청산은 원래 움직이지 않고 흰 구름은 왔다 갔다 하는 법입니다."

조계종의 신성을 상징하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사진〉가 10월 21일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법문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강조했다. '마음의 정원' 을 표방한 진관사 도량에 맞춰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겸손하고 굳은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한 것.



대종사는 먼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를 준비한 진관사 대중을 격려했다.

성파 대종사는 "기차는 속력을 아무리 많이 내도 철로를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이처럼 진관사는 시대를 앞서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부처님 본분사에 대한 법도를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종사는 이어 "사람들은 길이 막혀 목적지에 늦는다고 하지만 망자들은 차도 없이, 비행기도 타지 않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이 법석에 49일 전부터 모두 시간 맞춰 참여했을 것"이라며 "불보살님의 증명 아래 고혼들을 불러 모아 이고득락을 염원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예방의학, 범죄예방처럼 수륙재가 예방차원에서 지옥을 면하고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강조한 성파 대종사는 산 사람들이 행동을 조심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대종사는 "살다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건 그저 백운(白雲)일 뿐"이라며 "백운이 덮친다고 청산이 넘어지진 않는다. 청산은 중심이고, 마음이 곧 중심이다. 마음을 청산처럼 굳게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종사는 또 직접 겪은 6.25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숨이 희생된 사건인 제주4.3, 여순사건, 5.18민주화운동, 세월호 ·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한 뒤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깊은 못 근처에 가는 것처럼 살라"고 주문했다.

성파 대종사는 "모두가 조심하고 정신 차려서 앞으로는 오히려 이런 수륙재가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도록 노력해보자"고 부연했다.

"부처님법 전하는 데 삶 바치겠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진산식

"전법의 길은 나만의 길도, 여러분만의 길도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로 취임한 호산 스님〈사진〉이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전법의 길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스님은 10월 25일 봉선사에서 봉행된 제17대 교구장 진산식에서 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부대중 앞에 삼배를 올렸다. 봉선사의 가장 큰 어른인 회주 밀운 대종사를 비롯한 교구스님들과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원로대덕 스님들은 호산 스님의 다짐에 박수로 화답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진산식은 상월청년합창단과 상월비보이단의 문화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비보이들의 화려한 댄스와 청년들의 화음에 경내는 엄숙함 대신 활기가 가득 찼다. 청년포교와 문화예술포교에 앞장서온 호산 스님의 원력이 봉선사까지 이어진 결과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비롯
종단 원로대덕 다수 참석 축하
상월청년합창단 공연으로 활기
대학생 전법기금 1억원 희사해



호산 스님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2019년 상월선원 동안거 풍찬노숙 천막결사부터 계속된 상월결사의 가치를 되짚으며 "부처님법 전하는 데 온 삶을 바치겠다"고 짧은 포부를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호산 스님의 신심과 원력으로 비추어볼 때 봉선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밝게 비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중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살피면서 신도님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원융화합의 모범을 보여 원만한 종무행정을 펼쳐 나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봉선사 회주 밀운 대종사는 2015년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시절 공포한 승가청규를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밀운 대종사는 "아무리 절 불사를 잘해도 청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이라며 "신임주지가 교구 내 승단을 잘 이끌어 청규를 지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어를 위해 단상에 오른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청규를 잘 지키라' 는 밀운 대종사의 말씀이 곧 상당법문이고, 청년합창단과 비보이의 공연이 대중법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문이 아닌 본사주지로 취임한 호산 스님에게 당부한다고 밝힌 자승 스님은 "조계종은 본사주지 중심제다. 재적승의 입산부터 열반까지 복지를 책임지고 다양한 문중을 화합해 포교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본사주지 역할"이라며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위기는 본말사가 신심과 원력, 공심을 바탕으로 할 때 극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스님은 또 진산식에 참석한 전국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봉선사 교구스님들을 향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여기 앉아계신 스님들의 의지에 달려있고, 조계종은 사부대중이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며 "호산 스님도 본사주지로서 선두에 서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축사를 통해 "호산 스님은 선방에서 정진할 때 맹렬한 수행자였고, 주지로서는 엄청난 지도력을 보인 지도자였다"며 "봉선사와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를 잘 맡아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도 호산 스님이 40년간 쌓아온 다양한 경력을 언급하면서 "호산 스님의 진산으로 국화향기보다 진한 향기가 널리 퍼지길 축원드린다"고 축하했다.

호산 스님의 진산식에는 정관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김한정 남양주 국회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호산 스님의 주지 취임을 축하했다. 이외에 김영배 · 김병주 · 이수진 · 황보승희 의원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경일 파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등도 자리했다.

호산 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동국대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기금' 1억원을, 주광덕 남양주시장에게 '자비나눔 쌀' 300포를 기증하며 자비행에도 앞장섰다.

남양주=윤호섭 기자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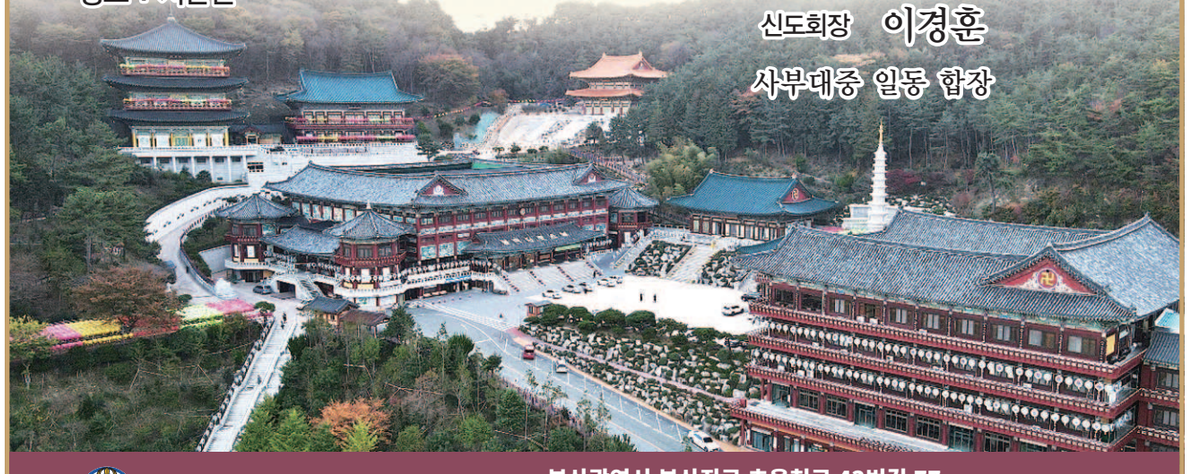
주경야선 관음수행도량 천태종 삼광사
게으른 자여 성불을 바라는가 -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중에서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삼광사 창립 54주년 기념 대법회
- 일시 : 2023년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지관전

삼광사 창립 54주년 기념 음악회
- 일시 : 2023년 10월 31일 오후 6시
- 장소 : 지관전

정 기 법 회 매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금강경전법회 매월 세 번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철 야 기 도 매월 일주일간 봉행
법화경독경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주 지 영 제
교 무 덕 중
재 무 무 성
신도회장 이경훈
사부대중 일동 합장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 051)808-7111~5 http://www.samkwangsa.or.kr/

미륵불 앞 실력 펼친 미래 K-POP 스타들

봉은사, 10월 22일 끼 경연대회
총 14팀 본선 무대…대상엔 오엉
"젊은 세대에 불교 가까이 계기"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서울 봉은사는 10월 22일 경내 미륵광장서 '2023 전국 끼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한복을 멋들어지게 입고 구성진 가락을 뽐낸 이규빈(20) 학생과 팀원 모두 유학생으로 구성된 에이오엠원(AOM1), 최연소 참가팀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눈빛으로 압도한 카리스마 CM크루, 왁킹으로 무대를 휘어잡은 포항 소녀 김예나(18) 학생, 여심저격에 나선 꿀보이스 포커스 온 등. 전국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끼를 마음껏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22일 경내 미륵광장 특설무대에서 '2023 전국 청소년 끼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끼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에게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불교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불교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미래사회 불교 인재 양성의 기반 구축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대회는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주)판타지오가 후원사로 참여해 예선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9세부터 24세까지 국내 거주 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 총 112개 팀(노래 65, 댄스 47팀)이 참가 신청했고, 1차 동영상 심사와 2차 라이브(Live) 경연을 거쳐 가요 부문 7팀, 댄스 부문 7팀, 총 14팀이 이날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 참가자들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이자 객석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경연 심사는 이연정 판타지오 이사와 박상미 판타지오 신인개발팀장, 김영오 안무디렉터가 맡아 가창력과 무대매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연정 이사는 "전문성이 뛰어난 무대들이었다. 분위기를 잘 즐기고 자신감 있게 해준 친구들에게 점수를 더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고, 김영오 안무디렉터는 "무대 구성과 기술력이 예사롭지 않다.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박상미 팀장은 "예선부터 지금까지 심사했는데 얼마나 더 발전한 무대를 선보였는지 중점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돌그룹 네이처와 루네이트가 축하무대에 올라 경연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날 경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가, 2등 금상에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가 주어졌다. 은상은 부문별로 각각 200만원, 동상에도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나머지 8팀에 참가상 각 50만원이 주어졌다.

1등 대상의 영예는 창작 안무로 무대를 꾸민 3인조 댄스팀 '오엉'에게 돌아갔다. 오엉(신채원 · 박경서 · 손민이)은 "친구들과 열심히 준비한 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주최 측에 감사하다"며 "사찰에서, 특히 웅장한 불상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처음인데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를 떠나 서스럼없이 재미있게 즐겼다. 앞으로도 많은 사찰에서 끼 경연대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며 "종교계 · 문화계 등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댄서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케이팝(KPOP)곡에 맞춰 군무를 선보인 리틀라자(김소정 · 김유서 · 김예슬 · 방여진 · 이서영)와 독특한 음색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김아영(19) 학생이 각각 은상 댄스 · 노래 부문에 선정됐다. 동상은 박정현의 '미아'를 열창한 서한별(21) 학생과 사투리가 매력적인 경북 영천의 MF크루(김미소 · 조주희 · 고운비 · 김미래)가 받았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청소년들이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무대를 꾸며줘 기쁘고 즐겁다"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 갈등 해결엔 제도보다 상호 이해가 우선"

홍선기 동국대 교수, 10월 23일
불사연 '현대사회 · 불교' 세미나
종교 간 이견 조정 방안 제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10월 23일 서울 전법회관서 '현대사회와 불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종교 간 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과 제도적 방안보다는 각 종교별로 상대 종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현실적 해결책으로 인식됩니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10월 23일 서울 전법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가 주최한 '현대사회와 불교' 학술세미나에서 종교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해외의 종교 갈등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 홍 교수는 유럽과 북아일랜드(개신교 · 카톨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유대교 · 이슬람), 시리아 내전(이슬람 내부), 스리랑카 30년 유혈 분쟁(불교 · 힌두교), 아프리카 소말리아 내전(기독교 · 이슬람), 아시아와 카슈미르(힌두교 · 이슬람) 등 세계 대표 종교 분쟁을 설명하며, 종교 간 다툼에 정부의 개입이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낳았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종교의 자유를 갖기 위해 800만 명 이상이 희생당했음을 알아야 한다"며 "종교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어떤 폭력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종교사회의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싱가포르의 행정을 소개했다. 홍 교수는 "싱가포르는 각 종교별로 이어온 전통 명절 모두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이 국가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결과 현지 사회에서 나와 다른 문화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기시한다는 것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단일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가 아니라 다종교국가"라고 말한 홍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과 동시에 다수의 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원칙으로 파악돼야 한다"며 "특정종교가 그 종교의 제도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타 종교의 반발을 불러오고, 종교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교 간 갈등은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가 아니다"며 "자타불이 정신을 강조하는 불교계가 종교 간 공존과 화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복희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 객원교수는 '현대 한국의 종교차별 역사와 현황'을 통해 정교분리 원칙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이해 · 변용됐는지 사례를 살폈다. 임 교수는 "종교편향 또는 종교차별 시비로 인한 종교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선 정부의 철저한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정부지원사업 선정에 종교라는 요소를 분리,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민석 동국대 법과대학 대우교수는 국내 종교 관련 행정 위법 사례를 언급하며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정착시키려면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률적 조정과 해결도 중요하지만 종교 간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술세미나는 이상훈 학국교수불자연합회장이 맡았고, 박문수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이사와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이 전체토론 논평자로 참여했다.

학술세미나에 앞서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오늘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종교 갈등 및 차별의 역사와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종교 관련 행정 위법 사례 등을 살피고자 한다"며 "종교 사이의 이견이 법률 및 행정의 차원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규범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비구니회 제12대 집행부 활동집 발간

2019~2023년 활동내역 담겨
12대 핵심종책 이행현황 점검
주어사 · 천진암 자료집 발간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2대 집행부 활동자료집이 발간됐다.〈사진〉

활동자료집은 제12대 회장 본각 스님이 취임한 2019년 11월부터 임기를 마무리한 2023년 11월까지 12대 집행부가 시행하고 추진한 다양한 종책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12대 회장 본각 스님의 발간사 △제12대 핵심종책 이행점검 △제12대 집행부 발자취 △주요활동 △발표자료 △사진으로 보는 제12대 집행부 △언론으로 보는 제12대 집행부로 구성됐다.

'주요활동' 부분은 제12대 집행부가 4년간 시행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내실강화 △재정보완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재정비 △비구니승가 수행 △비구니승가 교육 △비구니승가 복지-설문조사 △자비나눔 △대사회활동 △문화포교 △국제교류 △비구니승가 특화분야로 분류했다.

제12대 핵심종책 이행점검 부분은 제12대 집행부 출범 당시 선언했던 핵심종책의 이행도를 표로 분석하고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결과물이다. 5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구성하는 24개 세부항목을 중점으로 하되 각 항목에 집약적으로 구성된 내용의 이행현황도 추가해 보다 포괄적으로 다뤘다.

이행점검 결과 세부항목의 실행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불이행 항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글로벌인재 양성(단기 해외어학 및 수행연수, 장기유학 프로그램 도입)'과 비구니 승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위원회 신설' 두 건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행됐지만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아쉬움이 남는 항목들도 적지 않아 이행되지 못한 이유와 과제를 분석해 눈길을 끈다.

부록에는 역대 원로의장 스님과 역대 회장 스님들에 대한 소개, 12대 집행부가 제 · 개정한 회칙과 법령 등이 게재됐다. 또 4년간 전국비구니회의 다양한 사업과 불사에 마음과 원력을 내준 후원자들의 명단을 정리했다.

제12대 회장 본각 스님은 발간사에서 "제12대 집행부가 시행한 종책과 여러 활동들은 그 자체로 전국비구니회의 역사"라며 "활동자료집이 차기 집행부의 활동 데이터이자 지적자원으로서 이후 전국비구니회를 이끌 역량 있는 분들께서 지난 걸음을 되짚어 점검,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성과는 계승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선 스님들의 노력과 원력의 결실로 오늘의 전국비구니회가 있듯이, 본 백서에 담겨진 자료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전국비구니회로 거듭나길 염원한다"며 "부족한 부분, 다하지 못한 일들은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듭 삼배의 예를 올린다"고 전했다.

12대 집행부는 활동자료집과 함께 주어사 · 천진암 관련 자료집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주어사 천진암이 오늘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17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두 사찰을 배경으로 한 불교와 천주교,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현 정부(여주시, 광주시)까지 그들의 사업과 사건들 그 대응 활동을 모았다. 임은호 기자

불교평론 뇌허학술상에 조병활 박사 선정

〈조론 연구 조론 오가해〉로
오는 12월 23일 시상식 예정



한국불교학의 태두 뇌허 김동화 박사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낸 불교학자를 시상하기 위해 제정된 뇌허학술상의 올해 수상자로 조병활 박사(前성철사상연구원장 · 사진)가 선정됐다.

불교평론은 "'2023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조병활 박사가 선정됐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조병활 박사는 구마라집의 수제자로 대승교의를 정립한 승조(僧肇, 384~414)의 저술인 〈조론〉에 대한 연구와 역주서(譯註書)들을 묶어 〈조론연구, 조론오가해〉(전6권)을 발간해 학계에 "〈조론〉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을 수상한 조병활 박사는 "위진남북조시대 이래 시대마다 〈조론〉을 주석한 책이 반드시 출간됐다는 사실만 봐도 중국불교 사상사에서 〈조론〉이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며 "〈조론연구〉와 〈조론오가해〉가 출간된 지금은 〈중론오가해(中論五家解)〉 번역에 힘을 쏟고 있다.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여기고 〈중론오가해〉 번역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3 뇌허불교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23일 오후 6시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신중일 기자

상설행자교육원, 출가 진흥 돌파구 될까

조계종 출가장려위 2차 회의…행자 설문조사 검토

다수 행자, 육체적 피로감 호소
절반 이상 하산하고픈 마음 들어

지속적인 출가자 감소로 인해 일반사찰과 교구본사에서 행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에 따라 조계종이 '상설행자교육원' 개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조계종 미래본부 출가장려위원회(위원장 혜일, 해인사 주지)는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자의 퇴사율을 낮추기 위한 상설행자교육원 개설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교육원이 출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교육원 조사에 따르면 매년 행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행자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는 육체적 피로감을 꼽았다. 그리고 하산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스스로의 인내가 대다수였으며, 참회 · 기도, 스님과의 상담 등도 일부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교육원은 오래전부터 상설행자교육원의 개설을 고민해왔다. 입문교육 6일, 수계교육 14일인 현행 행자교육 기간을 2~3개월로 늘려 체계적인 집체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

출가장려위원회는 상설행자교육원 개설에 긍정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쳤다. 먼저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한 것은 습의사 수급이었다.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은 "습의사를 충원할 때 일반적으로 경력과 신규를 절반씩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비구 습의사는 모두가 신규였다"며 "한 회에 2~3개월간 운영하는 행자교육원에서 활동할 인력 확보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어깨춤 덩실덩실…'제2회 소림문화제'

소림사, 10월 24일 소림문화제
정관 스님 "주인공은 어르신들"



경로의 달 10월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연 한마당이 펼쳐졌다.

서울 소림사(주지 정관)는 10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회 소림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문화제는 소림사가 지역 나눔문화 실천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림사 주지이자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오늘의 주인공인 어르신들이 문화제를 통해 청춘을 느끼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작지만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궁화국악예술단의 태평가와 뱃노래, 경기민요 메들리 등 신명나는 무대로 막을 올린 이날 공연은 퓨전국악연주팀 별하의 가야금 · 해금 등 전통악기 연주로 절정에 올랐다. 300여 객석을 가득 채운 어르신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공연을 즐겼다. 이어 오디션 프로그램인 MBN 보이스킹 출신 가수 윤도가 '보릿고개'와 '사랑의 트위스트' 등을 부르자 어르신들은 연신 박수를 쏟아내며 큰 호응을 보냈다.

이날 소림문화제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 소림사 홍여래성 신도회장, 종로구의회 의원들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임은호 기자

"불교성전, 이젠 귀로 들으세요~"

조계종 출판사, 불교성전 오디오북 출간



대한불교조계종이 2021년 출간한 '불교성전'이 오디오북으로 제작됐다. 불자들이 부처님 핵심 가르침이 담긴 '불교성전'을 일상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불교성전' 오디오북은 '불교성전'의 모든 내용을 듣기 편안한 목소리로 독경한 음성을 제공하는 소리책이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을 비롯해 윌라, 밀리의서재 등 오디오북 콘텐츠 업체를 통해 종이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며 각 지역 도서관에서도 오디오북 대여로 만나볼 수 있다.

조계종출판사는 "부처님 핵심 가르침과 생애, 보살행, 불국토 구현 등 불교에 관한 핵심 내용을 가장 체계적으로 남아낸 '불교성전'을 읽는 것은 불자로서 실천해야 할 최상의 덕목"이라면서 "이젠 '불교성전' 오디오북을 경청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온전하게 마음에 담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성전'은 2019년 4월 조계종 불교성전편찬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편찬 작업이 시작됐다. 종정예하를 증명으로, 대덕스님과 각계 전문가 30여 명이 공의를 모아 2021년 2월 첫 종단본 '불교성전'이 출간될 수 있었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은 학인 스님과 학생 18명에 장학금을 지원했다.



미숙아 망막증 환자인 샤하디는 2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광동고 댄스팀의 열띤 무대는 음악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21일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하는 제15회 불암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국화 가득 산사 채운 선율…생명나눔 소중함 나눠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9.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남양주=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아 국화 향으로 물든 남양주 불암사에서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0월 21일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하는 제15회 불암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2007년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은 산사음악회는 대중들에게 문화를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음악회는 '새로운 도약, 여러분과 함께'를 주제로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김병주 국회의원,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을 비롯해 생명나눔 후원회원과 불암사 신도,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잊고 있었던 셀렘과 즐거움을 되찾기를 염원하며 열린 음악회에는 체험과 공연을 즐기려는 관람객이 몰리면서 불암사 경내를 더욱 활기차게 했다.

행사에 앞서 산사음악회의 분위기를 북돋아줄 식전행사가 진행됐다. 불암사 합창단의 '바람이 부는 산사'에 이어 '그대 없이는 못 살아'가 이어졌다. 공연 많은 관중의 환호와 박수를 이끌어 내면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신명 나는 무대에 이어 일면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2001년 창립된 일면장학회는 배움에 열정을 가진 학인 스님들에게 공부와 수행정진을 지원하는 한편 불자학생들도 지원해 불교인재를 양성하고자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다. 일면장학회의 명칭은 전 조계종 호계원장과 초대 군종교구장,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일면 대종사의 법명에서 따온 것이다. 매년 전후반기를 합쳐 약 30여 명에게 장학금 3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는 학인스님 11명, 학생 7명 등 총 18명을 선정, 장학금 1380만 원을 지원했다. 또 미숙아 망막증을 치료비가 필요한 환아 샤하디를 치료비 지원 환자로 선정, 200만 원과 일면 스님 자서전, 단주를 선물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환우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연간 60여 명의 환자에게 2억여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치료비를 지원받은 샤하디는 24주 미숙아로 태어나 호흡곤란증후군, 폐기능손상 등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단계로, 미숙아 치료 마지막 단계인 미숙아 망막증 치료 중에 있다. 샤하디의 아빠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실명을 예방할 수 있기에 치료비 전달은 더욱 큰 힘이 된다"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10월 21일 불암사 경내 개최
'새로운 도약, 함께' 주제로
장학금 · 환자 치료비도 전달
"생명나눔 확산 앞장서겠다"



산사음악회는 불암사 합창단의 무대로 막이 올랐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동국대 참사람사회공헌센터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 센터가 모집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본 행사가 마무리 되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 단체인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이 무대에 올라 산사음악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광동고 댄스팀, 배근호, 코리아로얄오케스트라, 주권기, 비니쌤 등이 출연해 국화향 가득한 불암사의 가을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불암사 산사음악회는 문화공연만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하고 "국화향 가득한 불암사에서 여러 장르의 다양한 음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풀어내고 함께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이날 산사음악회를 "날씨는 쌀쌀하지만 분위기와 마음만은 따뜻한 행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사장 스님의 인생 숙원사업이자 원력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내년 30주년을 맞이한다"면서 "교구도 생명나눔실천본부를 더욱 응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공연장 앞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이 진행됐다. 베리굿의원에서는 의료진 4명을 파견, 혈압 및 당뇨 측정뿐 아니라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송산노인복지관과 마하무용단이 운영하는 바자회도 진행됐다. 의류, 신발 등 생필품과 국수, 파전 등 먹거리 판매수익은 전액 환자치료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1994년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생명나눔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28년이 됐다. 장기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지원,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을 위한
제14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희망의 빛으로'

출연진


마하무용단


행복나누리문화예술단
(수리온태권도시범단)


주권기


이소원


임지민

일시 2023년 12월 1일(금) 오후 5시
장소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
주최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마하무용단
문의 02-734-8051 (티켓 2만원)
난치병어린이돕기 후원계좌 농협 053-01-271485

‘현충시설’ 범어사, 호국불교 정신 잇다

10월 23일, ‘2023 팔관회’서 기념식 · 위령재

서울현충원 국립묘지 설치 전
수년간 전몰군경 위패 봉안해
군 · 경 관계자도 참석해 축하
11월 11일 참전용사 영면기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돼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부산불교연합회가 주관하는 ‘2023 호국영령위령재’에서 열린 현충시설 지정 인증서 전달식을 통해 범어사와 부산불교는 국가와 민족 수호를 위해 노력한 호국불교의 정신을 인정받게 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는 10월 23일 범어사에서 ‘팔관회 호국영령위령재’를 봉행하고 현충시설 지정 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운 스님(범어사 주지)을 비롯해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천태종 삼광사 주지), 상임부회장 현강 정사(진각종 부산교구청장), 마나 스님(태고종 부산종무원장) 등 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종호 부산지방보훈청장, 강관범 육군 제53보병사단장 등 내빈과 해군작전사령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남해지방해양경찰청등 군 · 경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호국영령위령재는 △국민의례 △애국가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도위패 이운 △육법공양 △헌화 △발원문 △현충시설 지정 인증서 전달 △인사말 △봉행사 △추모사 △축원 △추모의 노래 △호국영령위령재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운 스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사한 과거 모든 역사의 수많은 무명용사들 영전에 추모의 향을 사른다”며 “숱한 역사의 굴곡 속에서 한국불교는 굳건히 민족정신을 이어왔다. 서울 현충원 국립묘지가 설치되기 전까지 범어사는 수년간 전몰군경의 위패를 봉안하고 넋을 위로하며 임시 국립현충원 역할을 담당했다. 범어사뿐 아니라 불교는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해 전몰장병에 대한 추모의 뜻을 모으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종호 부산지방보훈청장, 강관범 육군 53보병사단장, 주성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장이 추모사를 통해 현충시설 지정에 대한 의미를 전했으며 호국영령의 영면을 발원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이자 범어사 주지인 보운 스님과 전종호 부산지방보훈청장이 현충시설 지정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범어사는 국립현충원의 시원(始原)으로 전사자를 위한 추모 위령재를 봉행하고 야전병원의 역할을 담당했다. 아울러 ‘순국 전몰장병 영현 안치소’를 설치해 국립현충원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10월 21부터 23일까지 범어사 일원에서 ‘2023 팔관회’를 봉행했다. 21일에는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수계법회와 영유아 마정수기 법회가 각각 봉행됐으며, 22일에는 호국기원법회가 봉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호국기원법회에 이어 ‘백희가무’를 진행해 김영환 장군의 이야기를 주제로 특별공연을 펼쳤다. 김영환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인사 폭격명령을 거부했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팔관재계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팔관재계 수계법회에는 참여자들이 고려시대 복식을 입고 법회를 재현해 의미를 더했다.

이외에도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9월 10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팔관회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팔관회의 가치를 알려왔다. 본행사에 이어 팔관회는 11월 11일 오전 11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에 동참한다. 부산 전 지역 사찰은 이날 추모의 의미를 담아 범종을 11회 타종하고 참전용사들의 영면을 기원할 예정이다.

“자장율사 창건 정신, 면면이 이어져”

통도사 개산 1378주년 맞아 자장율사 영고재 · 기념식 영축장학금 32명 2680만원 지역발전 공로자 등 시상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10월 23일 개산조당과 설법전에서 개산 1378주년 개산대재를 기념하는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증명으로 열린 영고재 및 법요식에는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김명신 통도사 신도회장, 나동연 양산시장, 윤영석 국회의원,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법요식에선 자장율사의 행장이 소개됐으며, 봉행사 및 내빈 축사 등을 통한 개산대재의 의미를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매현 박순하 작가가 서예 작품을 통도사성보박물관에 기증한 공로를 치하하는 기증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10월 23일 개산조당과 설법전에서 봉행한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

아울러 통도사는 ‘영축장학금’을 마련해 박사 3명, 석사 6명 등 총 스님 32명에게 2680만원을 전달했다.

통도사 및 지역 발전 공로자를 위한 시상도 이어졌다. 공로자로는 백진재 양산시 문화관광과장, 조국래 양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소민 양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계 정보관, 노승우 양산소방서 소방교직원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10월 7일 열린 ‘제2회 초중고 사생실기대회’ 대상 수상자인 이하영(신주중1) 학생의 시상식도 열렸다. 지난 사생실기대회에는 전국에서 406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총 11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통도사 대중 스님들의 사진전 ‘나도작가다’ 대상은 선원 대중 자성 스님이, 통도사승가대학 학인 서예전 대상은 사교반 종선 스님이 받았다.

주지 현덕 스님은 “개산이란 산문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과거의 정신을 다시금 일깨운다는 뜻이며, 중생이 지나고 있는 불성을 깨달음에 다다르게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산대재가 자장율사의 창건 정신과 가르침을 계승해 천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룩한 사찰의 법통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불자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불교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고재 및 법요식에 앞서 ‘영축삼보이운 및 괘불 점안식’, 사진전 ‘나도 작가다’, ‘서예전’ 등 다채로운 전시가 진행됐으며, 향토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기획된 드론쇼 ‘마음의 불씨를 띄우다’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탱 특별전’이 개막했다. 부도전에서는 부도헌다례가 봉행되는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이어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르신들 노후 책임질 불사 ‘첫 발’

행복선원, 복지센터 건립 기원 금강경 1000일 기도 불사 입재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아우르는 노인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을 기원하는 천일기도가 입재했다.

부산 행복선원(주지 윤광)은 10월 22일 행복선원 법당에서 노인종합복지센터의 건립을 기원하는 금강경 1000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은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 조실 법타 대종사 초청법회로 진행됐다. 행사는 ‘춤추는 스님’ 하유 스님의 법고의식을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법문 △현판식 △주지스님 인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법타 대종사는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글자는 5149자다. 글자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 금강경을 완성시키는 것은 대단히 큰 불사이자 참여한 여러분은 큰 복과 공덕을 짓는 것”이라며 “눈에 보이는 일체의 것은 허망한 것이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근본을 생각하고 근본을 깨달으라는 금강경 가르침을 받들어 기도하는 동안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져 정진하시라”고 법문했다.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기원하는 1000일 기도 동참자의 발원을 담아 금강경 벽면 현판 제막을 하는 모습.

이어 법회에 참여한 사부대중은 오색실을 잡고 불 · 법 · 승 구호를 함께 외쳤으며, 현판식을 통해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길 기원했다.

행복선원 주지 윤광 스님은 “요즘은 가족이 있어도 마지막엔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방치하거나 학대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건 아니다 싶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어르신을 챙겨보자는 취지에 불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행복선원은 5년 전부터 요양보호사 7명을 배출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다. 하루 360원만 절약하면 불사에 동참할 수 있다.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금강경 1000일 기도는 매일 사시예불 때 금강경을 독송하며 100일 때마다 작은 회향의식을 가질 예정이다. 하루 360원의 기도비로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불사에 동참할 수 있으며 동참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금강경 한 글자를 새겨 법당 벽면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와 노인공동생활가정을 가진 노인종합복지센터는 행복선원이 있는 부산 북구 내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제33회 산해원 문화상’ 후보자 공모

창원불교연합회 주최, 11월 10일 접수 마감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회장 법안)가 제33회 향기로운 산해원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산해원 문화상은 향토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 언론인,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창원불교연합회가 1991년 제정했다.

시상은 문학상, 예술상, 언론 · 학술상, 행원상(지역개발), 특별상(한마음 봉사상) 부문이며, 후보자 자격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고 해당 분야 20년 이상의 전문 활동경력을 가진 문화예술인, 언론 및 학계 인사, 자원봉사자 등이다. 해당 연도의 활동이 현저한 사람을 우선 선정하며 후보자 개인의 종교와는 무관하게 심사한다.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7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고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6시 30분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개최된다. 후보자 추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불교연합회 사무처(010-5246-2112)로 하면 된다.

지난해 제32회 시상식에서는 문학상 이달균 경상남도문인협회장, 예술상 박금숙 경남서예단체총연합회장, 언론상 장원일 MBC경남 사업센터장, 한마음 특별공로상 故박수철 창원시불교연합회 사무총장이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5회 동국문화예술회전 초대전 개막

범어사 성보박물관, 청원 스님 작품 등 30여 점 전시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환응)이 10월 24일 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제5회 동국문화예술회전’ 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전시는 박물관 증축 이전 후 첫 초대전으로 불교미술의 발전과 미래 인재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범어사는 이날 불교미술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소장유물 도록 〈범어사의 불화〉 60권을 증정했다.

개막식에는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과 관장 환응 스님, 통도사 박물관장 송천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국장스님들과 이영경 동국대 WISE 캠퍼스 총장, 정병국 동국대 교수, 조해종 교수, 최유현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 이현주 부관장, 김선기 초대작가, 오기웅 초대작가, 최무상 동국문화예술회 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관장 환응 스님은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불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불교



문화재의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동국문화회전은 이런 노력의 일환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 박물관이 개관한 이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초대전이라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초대전은 부산시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청원 스님의 ‘사자상 · 코끼리상(목재)’과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의 작품 ‘국가무형문화재 80호 자수장(견본채색)’,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불화장 김종섭의 ‘옴 오백나한도(견본 · 선화)’ 등 3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11월 5일까지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

부산포교사단, 열암곡 마애불 바로세우기 기도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이 10월 21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친견하고 기도정진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재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을 비롯해 포교사 및 불자 50여 명이 함께했다.〈사진〉

송재린 단장은 “마애불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불교의 중흥과 미래 천년을 위한 원력 사업”이라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집행부를 구성해 진행하는 ‘열암곡 마애불 바로세우기’에 종도로서 힘을 보태 앞으로도 기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추진



하는 ‘천년을 세우다’의 종책 사업 가운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는 핵심 사업이다. 미래본부는 지난 4월 입재 천일기도와 더불어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다라니 108독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여성장애인 가족나들이 지원

부산장애인복지관, ‘가족과 함께 롤린롤린’ 개최

사회복지법인 내원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이 10월 22일 해인사 일원에서 여성장애인 가족나들이 ‘가족과 함께 롤린롤린’을 개최했다.〈사진〉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가 함께 후원하고 봉사한 이번 가족 나들이에는 11가정 22명과 미소원 청년회 회원 10여 명이 동참했다. 아울러 이날 미소원 청년회는 장애인 가족나들이 후원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후원금은 미소원 청년회가 주최한 ‘이웃돕기 성금 마련 미청맛집’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이다.

류강열 미소원 청년회장은 “평소 나



들이의 기회가 없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분들과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할 수 있어 기뻤다”며 “법보종찰 해인사와 가야산의 단풍이 함께 어우러진 신사에서 마음의 힐링을 함께 얻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MZ 스님들에게 듣는 동진출가 이야기

화엄사, 10월 21일 '화야몽' 성료
야간 개방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
연성 · 연우 스님과 차담하며 소통
솔직 생생한 출가담에 대중들 공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연성 · 연우 스님은 '동진출가 이야기를 듣는다' 라는 주제로 차담을 진행했다.

최근 야간 개방행사와 독특한 프로그램을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화엄사가 올해 마지막 야간 개방행사인 '화야몽' 을 개최했다.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는 10월 20일 경내 보제루와 구층암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화야몽 행사를 통해 화엄사 대표 MZ세대 스님인 연성 스님(화엄사빛고을포교원 주지)과 연우 스님(화엄사 원주)스님이 참여한 차담과 소원지 달기, 사찰 탐방을 진행했다.

보제루에서 진행된 차담은 '동진출가 이야기를 듣는다' 라는 주제로 두 스님의 어린 시절 출가 이야기와 수행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첫 번째 대담자로 나선 연성 스님은 "출가에 후회는 없고 지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단언하며 "제가 13세 살 쯤, 부모님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모질게 키울 수 없어, 모질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서 키우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즈음 어느 비구니 스님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찰에 가면 백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친한 친구와 출가한 지 5년 만에 만났는데 저를 보고 '너무 부럽다' 고 이야기 했다"며 출가 이후 바뀐 삶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화엄사 원주 연우 스님은 "7살에 절에 처음 왔는데 이틀이 지난 후 절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게 됐다"며 남다른 사연을 소개했다.

이어 스님은 "성인이 돼 정식 출가를 하기는 싫었다. 하지만 당시 불교책을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매력에 빠지게 됐다. 2500년 동안 이어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고 싶다"며 참가자들에게 '베품' 을 통해 행복을 강조했다.

연우 스님은 신도들이 질문한 윤회, 신행 생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한 참가자가 최근 MZ세대에 출가자가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연우 스님은 "요즘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이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이 많다"며 "향후 나이가 들어갈수록 종교에 대해 생각이 깊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연성 스님은 이에 대해 "세상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의지처가 돼 줄 수 있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마음이 힘들 때 보험을 들듯이 종교를 갖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이날 두 스님의 대담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보리수 잎에 소원을 작성하고, 사찰 탐방과 구층암, 사사자삼층석탑 등을 참배하며 각자의 소원을 기원했다.

화엄사는 올해 야간 사찰 개방과 특별 프로그램으로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화엄사 측은 "내년 행사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겠다" 고 전했다.

"분별과 차별 넘어 보살행을"

금산사, 10월 21일 개산 1424주년 법회 봉행

미륵십선계 수계로 신심 고취
음악회 등 기념 문화행사 다채



금산사가 개산 1424주년을 맞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금빛인생 음악회 모습.

백제 법왕원년(599년) 백제왕실의 자복 사찰로 창건된 미륵신앙 성지 모악산 금산사가 개산 1424주년을 맞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는 10월 21일 금산사 개산 1424주년을 맞아 분별과 차별에 찌든 중생들의 무명을 거두고 능히 자비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금산사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봉행된 개산대재는 제17교구 비구니 스님들의 육법공양에 이어 개산대법회, 미륵십선계 수계식, 문화체험, 금빛인생 음악회, 만등 점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산대법회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주지 일원 스님,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원행 스님,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을 비롯한 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한광수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김성주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등 각급 기관장들과 불자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들은 창건 이래 역대 조사스님들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진력하셨던 위법망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고귀한 유지의 계승을 다짐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개산 1424주년을 맞아 오늘 법석은 불보살과 역대조사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한발 더 전진하겠다는 발원의 자리" 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연기(緣起)의 세계임을 인식하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존(共存)과 공생(共生)을 통해 인류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통을 해소해 나가야 함을 이번 개산대재를 통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은 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킨다고 번역할 수 있다" 며 "인간은 존재 그 자체와 삶에서 비롯되는 고의 문제를 극복하고 열반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운문선사는 일일시호일이라 했다"며 "금산사 개산대재를 맞아 상에 머물지 말고 반야지혜로서 평등하고 차별 없는 일미의 세상임을 바로알기 바란다"고 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룡이 나르샤' 호국불교 기치 올리다

함안 마애사 '호국청룡상 · 윤회탑' 조성불사 회향

동양 최대 호국청룡상 조성
생사 해탈상징 윤회탑 점안


고생해 준 대덕스님과 불자 지역관계자 분들의 동참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함안 마애사(주지 성주)가 '호국 청룡과 윤회의 탑' 조성 불사 회향 기념 점안법회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10월 21일 새롭게 조성한 청룡상과 윤회의 탑 앞에서 봉행된 점안법회 및 산사음악회에는 마애사 회주 무진 스님, 마애사 주지 성주 스님, 불국사 선원장 종우 스님,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조근제 함안군수, 김두관 국회의원, 김승오 함안교육장, 조영제 경남도의원, 안한진 신도회장, 조용찬 함안불교신도회장 등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청룡상은 마애사 경내 대형 바위에 조성한 것으로 길이 38m, 폭 16m 크기로, 국태민안과 호국을 발원하며 5년여의 공사기간 끝에 완공됐다. 함께 조성된 윤회의 탑은 영혼의 안식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애사 주지 성주 스님은 "청룡과 윤회의 탑에 서린 공덕의 기운이 방어산 자락 마애사에 깃들어 나누고 베푸는 삶 속에서 앞으로 마애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애사 회주 무진 스님은 "호국청룡과 윤회의 탑이 완성되기까지 5년여 동안 이어진 2부 산사음악회에서는 명상음악가 홍순지 씨와 불국사 오어사합창단의 찬불가공연에 이어, 인기가수 배일호, 현숙, 김의영, 박서진, 별사랑 등이 출연해 참석한 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명승' 쌍계사 개산 1300주년 대축전 개최

10월 17~23일 경내 일원서
명승 지정 법회 · 세미나 등



하동 쌍계사가 개산 1300주년 기념 대축전의 일환으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명승 신규지정 기념 법회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10월 17~23일까지 화엄전에서는 『대방광불화엄경』 고산 화상 약찬가 독송기도가 봉행됐으며 18일~20일에는 쌍계사 팔영루에서 대강백 덕민 스님의 쌍계사 중창기 및 주련 특강이 열렸다. 10월 20일에는 예술관 대강당에서 쌍계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기념 법회와 '쌍계사, 청학동-우리들의 이상향을 찾아서' 를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진행됐다.

기념법회에서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주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쌍계사와 지리산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후대에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 생명나눔문화 '무등대회' 열어

베트남 · 캄보이다 · 스리랑카
이주민과 소통 시간 가져



광주 생명나눔문화(대표 도제, 보은사 주지)는 10월 22일 더불어 락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오지게 속 시원한 무등대회' 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과 마음속 답답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제 스님은 "평화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차별과 부당한 근로조건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유학생 결혼 이주여성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이들에게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을 조언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스리랑카 라시가, 캄보디아 박미향, 베트남 하오 씨가 자신들의 사연과 고민 등을 이야기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들의 언어 교육기관 설립 필요도 제시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마지막에 이주민 인권선언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파라미타, 제4회 탁발 재현 문화 행사

10월 21일, 광주 양동시장서
행사 수익금, 장학금으로 사용



지역 청소년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스님들이 탁발에 나섰다.

(사)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소운, 광주 관음사 주지)는 10월 21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제4회 전통탁발 재현 문화행사' 를 개최했다.

2023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일환으로 진행한 이날 탁발행사는 (사)날마다 좋은날,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백양사신도회, 전통탁발보존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나주 녹야원 효공 스님, 소원정사 도계 스님, 소운 스님을 비롯해 지역 사찰 주지 스님과 김대원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용목 양동시장 상인회장, 강윤구 광주전남포교사단장과 포교사, 이현만 운전불자회장과 회원들, 불교종립 정광고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조선대학교 풍물패를 선두로 정광고 학생들의 만장기, 동자승, 탁발스님, 포교사단, 운전불자회 등 150여 명이 뒤따르면 1km남짓 거리의 양동시장에서 탁발의식을 진행했다.

탁발에 앞서 소운 스님은 "불교의 전통의식이자 숭고한 수행의식인 탁발의 정신을 잘 살려 그 수익을 청소년들에게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모았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전통탁발 재현행사에서 마련된 수익금은 청소년희망나눔 장학금으로, 김이강 서구청장에게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 성주사 가을 산사음악회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가 클래식과 함께하는 가을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10월 21일 성주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성주사 가을 산사음악회는 10월 1일부터 진행된 성주사 산사문화제의 일환이다.

음악회는 가릉빈가 찬불단의 공연과 주지스님 인사, 축사, 김해 신포니에타의 공연, 정행 스님 공연, 대방성당 그라시아 성가대의 공연, 가수 임지훈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대방성당 성가대는 지난해에 이어 종교를 초월한 화합과 소통의 무대를 선보였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사회가 화합해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의 세계로 바뀌지길 서원한다"며 "이 순간 화엄의 꽃이 피고 불보살의 가피가 충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산청 덕산사 대웅전 중창불사 기공식



산청 덕산사(주지 동조)가 10월 21일 대웅전 예정부지 앞에서 대웅전 중창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덕산사 주지 동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덕산사는 서기 657년 원효 성사께서 덕산사 가람을 창건하신 이래 천년이 넘는 유구한 세월 동안 면면히 우리 삶에 바른 안목을 제시하며 풍성한 정신문화를 이끌어왔다"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의 향기가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는 대웅전 불사를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보 233-1호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불전으로 기공식을 마친 덕산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한식복구조로 면적 85.5m, 다포식 팔작지붕 형식으로 건립된다. 2024년 4월 완공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영산재보존회, 위안부 등 위령영산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의 영령을 천도하는 위령재가 열렸다.

사)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회장 월인, 법륜사 주지)는 10월 25일 광주 법륜사 설법전에서 '제5회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 위령 영산재' 를 봉행했다. 위령재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 광주영산재 보존회 30여 명의 스님들이 참여해 시련을 시작으로 신중작법, 상주권공, 작법무, 축원, 시식 등을 진행했다.

월인 스님은 "아픈 역사 속에서 희생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강제 동원된 위안부와 징용자들의 명예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남사 6차 금강경 독송 정진법회 입재



행복도량 울산 해남사(주지 혜원)가 원 성취를 위한 6차 금강경 독송 정진대법회에 입재했다.

10월 24일 해남사 설법보전에서 입재한 금강경 독송 정진 대법회는 11월 14일까지 21일간 이어진다.

매일 오전 8~12시, 오후 2~4시, 저녁 7~9시까지 하루 3차례 금강경을 21독 총 441편의 금강경을 독송하게 된다.

주지 혜원 스님은 "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발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발심을 통해서 금강경의 말씀이 귀에 와닿고 금강경의 내용을 실천해야 한다"며 "모든 인연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향하고 성불하는 원을 성취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원 성취이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템플스테이는 ‘마음’… 불교에 빠져보세요”



묘향 스님은 출가 삭발식에서 “포교에 일생을 다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15년째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를 알리고 있다.



참가자와 ‘108염주 꿰기’를 하고 있다.



해양경찰들과 함께한 ‘찾아가는 템플스테이’.

스토리텔링 기획

템플스테이 & 피플 1

묘향 스님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출가 삭발식서 ‘포교’ 원력을 세워
15년 경력 ‘베테랑’ 지도법사 정평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에 매진
연령·직업군 등 맞춤형 체험 강조

내소사=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마지막도 친절.”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묘향 스님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대하는 자세다. 저마다 갖가지 고민과 불안, 설렘과 기대를 안고 찾아왔을 사찰. 참가자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기에 조금의 불편함도, 조금의 소외감도 주고 싶지 않은 스님의 철칙이다. 템플스테이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그저 묵은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에 스며들길 바랄 뿐이다.

묘향 스님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스님들 가운데 ‘베테랑’으로 꼽힌다. 스님은 2008년 첫 소임을 맡은 후 꼬박 15년간 한길을 걸어왔다. 경력도 경력이지만 프로그램 개발, 지도 역량 강화 등 템플스테이 운영에 질을 높이기 위한 공부도 늘 손에서 놓지 않는다.

“템플스테이는 서비스업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숙박·요식·상담·체험 등 모든 게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이죠.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니즈(needs)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템플스테이가 좋은 경험으로 기억된다면 불교를 향한 긍정적인 인식도 자연스레 생겨나겠죠.”

묘향 스님이 템플스테이와 맺은 인연은 출가 시절 세운 포교 원력과 맞닿아 있다. 아픈 어머니의 간병을 도맡았던 스님은 번뇌를 여읜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불교에 있음을 확신했다. 불교의 매력에 빠져 출가를 결심한 후 1997년 용인 화운사를 찾아갔다. 은사스님을 만나자 부처님에 의지해 살아가겠다는 다짐은 더욱 견고해졌다. 산문에 든 지 일주일만에 삭발식이 열렸다. 은사스님이 마지막 남은 머리카락 한 움큼을 자르는 찰나, “포교를 위해 일생을 다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봉녕사 강원과 중앙승가대에서 공부하며 식견을 넓혀가던 스님에게 어느 날 선배스님이 법흥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소임을 추천했다. 지금껏 배워온 불교를 실천할 수 있다는 감사함과 포교 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흔쾌히 승낙했다. 그렇게 스님은 영월 법흥사, 경북 장육사, 양양 낙산사, 인제 백담사, 부안 내소사 등을 거치며 차곡차곡 경험을 쌓았다.

2년여 전부터 내소사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은 연령, 직업군, 모임 성격 등을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불교를 알아가고 싶은 이들에겐 체험형을, 인간관계에 지친 이들에겐 휴식형을 권유한다.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이들에겐 걷기 명상을, 비종교인들에겐 한지를 활용한 전통문화체험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남녀노소 사랑받는 프로그램은 스님이 직접 1시간 30분 동안 사찰 곳곳을 소개하는 ‘사찰안내’다. 사찰안내는 오리엔테이션 이후 진행되는 첫 활동으로, 템플스테이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스님이 손수 매듭을 지어주는 ‘108염주 꿰기’도 참가자들에게 “환대받는 느낌” “선물 하나 받아 간다” 등의 후기를 받으며 호응이 높다.

“사찰이라고 하면 딱딱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런 편견을 조금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각들을 소개할 땐 영화, 드라마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과 연관지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장전의 경우 영화 ‘신과 함께’에 비유해 소개하니 많은 분이 재미있게 들어주셨죠. 그렇게 불교를 쉽고, 편하게 알아간다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삶에 스미는 포교도 이뤄질 것이라 믿어요. 사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드리려면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도 모자랍니다.”



묘향 스님은 참가자들이 털어놓는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건넨다.

무엇보다 스님과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차명상’은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참가자들에게 쉼과 힐링을 선사한다. 수련회 형식으로 단체가 많았던 전과 달리 개인 또는 소수 그룹 참가자가 많아지면서 그들이 털어놓는 고민도 다양하다. 20대는 졸업과 취업이, 30대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40대는 가정의 불화가, 50대는 퇴직이 고민의 큰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최근 참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20~30대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걱정이 많은 게 고민입니다’ ‘회사 일에 찌들어 있다가 다래끼도 나고 몸도 마음도 지쳤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어느 방향을 가더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등 불안한 현실과 미래, 인생의 방향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럴 때면 스님은 참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건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음으로 후회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음으로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지금 여기’ 밖에 없습니다. 1초 1분이 모여 현재가 만들어지는 만큼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 갑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은 결국 스스로의 욕심과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나와 같길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본인 이름을 10번 이상 불러보세요. 큰 힘이 되고 자존감도 생길 것입니다.”

스님은 중앙승가대 재학 당시 복지를 전공한 덕에 상담과 교류에 능숙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젊은 참가자도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후 ‘잘 살겠다’는 마음을 얻었다. 게다가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알게 된 10여 명은 불교와 인연을 맺고 10여 년이 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물론 사람을 상대하기에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다. 그럴 때마다 카멜레온이 된 듯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더욱 애쓴다. 이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의 ‘소명의식’에서 비롯됐다. 웃음이 주변으로 전염되듯, 참가자를 평온으로 이끌기 위한 솔선수범인 셈이다.

묘향 스님은 요즘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포교 영역 넓히고 있다. 경찰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것이다. 올해 9월에는 부안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 20명을 대상으로 합장주 만들기, 명상 체험, 스님 법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템플스테이는 ‘마음’이라고 강조한 묘향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지도법사와 실무자들은 제 역할을 해내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 즉 프로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참가자들도 모든 근심과 번뇌를 내려놓고 올곧이 쉼에 다가가야 합니다. (템플스테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다가 불교의 편안함에 푹 빠져보길 바랍니다.”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단 1회 특별행사)

12월 2일 출발~9일 도착

인도양의 진주라는 아름다운 스리랑카는 수령 2,500여년 된 보리수와 부처님 치아사리, 그리고 바위산 위에 있는 궁전 시기리야, 담불라 황금석굴사원, 폴론나루와의 불상과 유적, 유럽풍의 휴양도시 갈레 등 성지순례 및 휴양으로도 훌륭한 곳입니다.

동참금 | 219만원
일 정 |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12월 6일 출발~10일 도착 (3박5일간)

보로부두르 대탑은 1,200여년전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불탑입니다.
1460개에 달하는 벽면에는 부처님의 전생담과 탄생등 생애에 관한 장면들이
그리고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이 조성되어 있고
최상층에는 화엄법계를구현하는 부처님의 세계를 조성한 세계 최고의 불탑입니다.

동참금 | 169만원
일 정 | ▶1일 :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자카르타
▶2일 : 자카르타–족자카르타–프람바난사원,세우사원,플라오산 불교사원등 순례
▶3일 : 보로부두르 대탑, 멘듯사원등 순례
▶4일 : 머라피 화산 지프로 관광 후 족자카르타 출발, 자카르타 도착(경유)
▶5일 : 인천 공항 도착

달라이라마 인도 보드가야 법회 10일

달라이라마 법문 및 성지순례(12월26일~1월4일 도착)

인도 보드가야에서 달라이라마 법문이 23년 12월29일에서 31일까지 3일간 봉행됩니다.법문과 더불어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보드가야 대탑에서 기도와 영축산등 성지순례를 하는일정입니다.

동참금 | 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보드가야법회(보드가야대탑–계족산–전정각산–가야산)–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칠엽굴–제석굴)–파트나–델리–인천



특별한 일정
1. 달라이라마 보드가야 법회 3일간
2. 부처님 성불하신 보드가야 대탑 기도
3.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금란가사를 지니고 들어가서 미륵부처님을 기다린다는 계족산 등정
4. 부처님이 오르셨던 전정각산과 가야산 등정
5. 법화경 설법지 영축산과 나란다대학
6. 제석천이 찾아와서 설법을 요청한 제석굴 순례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제주불교 사찰 법정사, 항일기지 역할 수행”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10월 21일 ‘근대제주불교사, 진실을 찾다’ 세미나

제주=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이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을 발표하고 있다.

혜달스님,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정구용’
1918~23년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분석해
1918년 법정사 주지인 ‘김연일’ 총지휘
스스로 불무황제, 성덕주인 등 칭하며
“日 내쫓고 민족 구제, 불교 포교” 주장
“법정사 운동 주체 보천교” 주장은 왜곡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이 10월 21일 개최한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 세번째 시리즈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주 쌍계암 주지 상민 스님이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의 성격 조명’을 발표하고 있다.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9년 음력 9월 3일 불교도가 중심이 돼 펼친 제주도 최초이자 최대 무장항일투쟁이지만, 한 때에는 ‘보천교의 난’으로 잘못 알려졌다. 그러나 1991년 8월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을 김봉옥 씨 등이 발굴해 비로소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바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체를 보천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왜곡되고 있는 근대제주불교사를 바로 잡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달)은 10월 21일 제주시 테크노파크(벤처마루) 10층 1001호 세미나실에서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Ⅲ’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왜곡되고 있는 근대 제주불교사를 바로 잡기 위해 시작된 봉련관불교문화연구원의 노력은 지난 2019년 ‘제주의 여성리더 봉려관, 항일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 시리즈로 이어져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이날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을 통해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을 새로 번역 · 교감해서 대중에게 공개했다.

혜달 스님이 새로 번역 · 교감한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정사는 봉려관 스님이 1911년 창건한 사찰로 처음에는 법돌사(法乭寺), 법정암 등으로 명명됐다. 1918년 당시에는 김연일 스님이 법정사의 주지 소임을 보고 있었다.

판결 기록에는 김연일 스님이 평소 “제주도에서 일본인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사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항일 의식을 고취했다. 1918년 음력 6월 방동화 스님이 박주석을 찾아가 ‘법정사로 와 달라’ 요청했고, 음력 8월 4일 법정사로 찾아온 박주석에게 김연일 스님은 거사 계획을 설명했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박주석은 함께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연일 스님은 “제주도에서 일본인 전부 내쫓은 후, 육지로 나가서 불교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방동화 스님이 법정사에서 항일거사대의 인원 확충 방안을 수립했고, 김연일 스님과 심복들도 이에 찬성했다.

이들은 음력 9월 3일 법정사를 출발해 각 지역을 경유해 서귀포를 습격한 후 9월 4일에는 제주성을 습격할 계획을 수립했다. 김연일 스님은 항일거사대의 역할도 정했는데 선봉대장에는 장림호(거사 당시엔 강창규), 좌우대장엔 방동화 · 강민수, 중군대장 양남구, 후군대장 김삼만이 맡았다.

음력 9월 1, 2일에는 법정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 김연일 스님은 대중에게 “나는 불무황제(佛務皇帝)다. 일본인 관리를 제주도에서 추방해야 한다. 모두 내 명령에 따라 명령을 부락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모집하라”고 명령했다.

항일 거사에 참여한 인원은 34명으로, 이들은 격문과 깃발 6개, 화승총 3개, 몽둥이 수십 개로 무장하고 음력 9월 3일 새벽 법정사에서 출정했다. 출발 직전 법정사 경내에 깃발을 세워놓고 기도를 하며 출정식을 했고, 이 자리에게 김연일 스님의 비범함과 항일 거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정구용이 했다.

출정한 항일거사대는 상동에서 영남리-호근리-서호리-강정리-도순리-하원리-중문리로 나아갔다. 34명으로 시작된 항일거사대는 중문리에 당도했을 당시에는 300~400명에 달했고, 중문리 경찰 주재소를 습격해 주재소 서편을 방화하고 시설을 파괴했다. 하지만, 말을 탄 순경들이 총을 쏘며 달려왔고, 항일거사대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다.

혜달 스님은 “재판부가 판단한 법정사 항일거사대 구성원은 불교신도와 농민”이라며 “법정사를 출발할 때 34명 중 상당수가 불교도일 개연성이 높고, 상동에서 중문리 경찰 주재소까지 각 마을에서 모집한 인원 400명은 대부분 농민으로 판단된다. 몇 명을 제외한 이밖에 대다수의 가담자를 특정종교인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사 항일운동은 조국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이었으며,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위는 차치하고 국가와 민족만을 염두한 지도부, 자의 · 강제적으로 가담한 평범한 제주도민의 투쟁이었다”며 “이 같은 항일항쟁의 정신과 의미 선양을 뒤로 한 채 법정사 항일항쟁에 종교성을 입히는 연유가 무엇인가. 법정사 항일운동은 불교계의 전유물도 보천교의 전유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정사는 항일핵심인물들이 총집결했던 거점지였고, 항일기지로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한 혜달 스님은 “앞으로 연구자들은 미공개된 법정사 항일인사의 판결문과 재판 문건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안하며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연구성과가 도출됐을 때, 비로소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이 1919년 3.1운동을 견인한 국권회복운동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의 성격 조명’을 발표한 제주 쌍계암 주지 상민 스님은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반을 소개하며, 김연일 스님이 스스로를 불무황제, 성덕주인, 옥황상제라고 지칭한 의미에 대해 살폈다.

상민 스님은 “김연일 스님이 스스로 불무황제라고 칭한 것은 수행자로서 보살도를 실천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은혜(四恩, 삼보 · 국왕 · 부모 ·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은 불무황제라는 호칭을 빌어 보살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는 ‘일제강점기 제주불교 인물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불교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김태민, 최원순, 김근시 등 인물들의 면면을 살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허남춘 제주대 국문과 교수를 좌장으로 혜달 스님, 상민 스님, 강상무 법정사 항일독립운동 유족회장 등이 논평자로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부처님 가피를 받아보세요
最古 ‘수구다라니’ 첫 공개

국립경주박물관, ‘수구다라니’展
내년 1월 28일까지 특별전시관서


첫 공개되는 한자 수구다라니.

수구다라니는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卽得陀羅尼)’라고 하여 다라니를 외우는 즉시 바라는 바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구다라니’를 친견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함순섭)은 내년 1월 28일까지 특별전시관에서 특별전 ‘수구다라니, 아주 오래된 비밀의 부적’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경주 남산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통일신라기 금동제 경합(經盒)과 그 안에 들어있던 범자(梵字)와 한자(漢字) 수구다라니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수구다라니는 2020년 경주 남산을 주제로 학술대회에서 처음 소개됐다. 이 다라니는 1919년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입수하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리했으며, 정확한 정보와 연구 자료 확보를 위해 과학적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보존처리와 조사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입수 당시 수구다라니는 범자 다라니와 한자 다라니 두 개가 하나의 종이에 같이 배접된 직사각형 형태(32.9×46.8cm)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각각 수구다라니임을 재확인했고, 다시 보존처리를 거치면서 각각 분리 · 복원해 범자 수구다라니(29.7×30.3cm)와 한자 수구다라니(29.5×30.9cm)는 원래 형태인 정사각형 모양을 찾았다.

범자 수구다라니는 16개의 조각으로 분리된 것을 대략 배접한 상태로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한자 수구다라니 역시 일부 조각이 잘못 배치돼 있는 것을 기초조사에서 확인했다. 두 다라니는 불교 고문헌 연구자의 번역 및 판독, 적외선 사진 촬영, 고화질 스캔 및 사진 촬영 등 수많은 조사 과정을 거쳐 원래의 모습을 찾았다. 그리고 두 다라니의 지질(紙質)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만든 닥종이에 쓴 필사본 다라니로 확인됐다.

함순섭 국립경주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다라니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이어져 고대 불교문화의 진면목을 좀 더 살펴봤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5~10/3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돈황본육조단경(4본대조/정본역주)	조영미,최연식,김종욱,김천학,박인석 역주	운주사
3	미얀마아라한의 수행:9위빠사나선사들의 법문모음	강종미 편역	해장각
4	아잔브람 행복론(삶이 줄수없는것을 바라지 않는 지혜)	아잔브람	북투더바이블
5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6	부처님의 생애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7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11) 마음을 만드는 뇌의 구조	문일수	운주사
8	호흡법문 핵심강의 *증보판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9	자타카로 읽는 불교(1) 산치대탑아잔타석굴의 본생담	각전 글,사진	민족사
10	이해하고 내려놓기: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팔정도	일묵	불광출판사

책세상

알면 알수록 보이는 사찰 구석구석 숨은 보물찾기



사찰에 가면 문득 보이는 것들
노승대 지음
3만 원 / 불광출판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누군가는 전국 곳곳에 자리한 사찰을 '숲속의 박물관'이라 칭한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불상과 불화, 전각 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절집에 자리한 보물은 단지 그뿐만이 아니다. 저자는 우리가 '문득' 찾은 사찰에서 '으레' 지나쳤던 것들, 이를테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를 절 마당의 돌기둥이나 단순한 장식으로 보이는 지붕 위의 오리 조각, 불상 앞에 놓인 탁자는 물론 절집의 일상을 보조하는 계단, 석축도 우리 역사 속의 보물이라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놀랍게도 이들 하나하나에 거대한 역사적 맥락과 상징적 의미, 옛 조상들의 지혜와 염원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문득 찾은 사찰에서 으레 지나치게 되는 것들. 그것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그동안 절집에 숨어 살던 신기하고도 의외인 존재와 그 역사·문화를 조명하며 절집의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해 온 저자는 전작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사찰 속 숨은 조연들〉에 이어 절집의 숨은 보물찾기, 그 '마지막 라운드'를 펼친다.

총 2부로 구성된 〈사찰에 가면 문득 보이는 것들〉에서 저자는 암벽 위에 새기고, 바위를 다듬어 조성한 사찰의 석조물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한 사찰 속 의외의 보물에 대해 다룬다.

1부는 암벽 위에 새기고, 바위를 다듬어 조성한 사찰의 석조물에 관한 내용이다. 어느 사찰에서든 만날 수 있어서 관심 가지 않았던 보물로 마애불, 석탑, 석등, 승탑, 그리고 그 용도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노주석과 당간지주를 다룬다.

2부에서는 사소해 보이지만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한 의외의 보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법당의 불상 앞에 놓인 탁자와 법당에 오르는 계단, 돌로 쌓은 옹벽인 석축은 물론 사찰 화장실 해우소, 전각 지붕 위에 얹어진 오리 조각, 처마 밑에 놓인 항아리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서 관심 가지 않은 것들, 혹은 사찰의 단순한 장식이나 생활용품, 일상적 공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무엇도 그냥 있을 리는 없을 테다. 저자는 그간의 공부와 답사를 통해 끌어모은 이야기 보따리를 아낌없이 풀어 하나하나에 새겨진 역사에 관해 들려준다. 특히 그 연원부터 우리 땅에 자리하게 된 경위와 그 안에 깃든 상징적 의미에 대해 설명함에 있어, 종교와 역사, 오래된 문헌과 기록, 설화와 신화 등을 종횡무진한다. 더욱이 현존하는 유물의 사례를 300여 컷의 사진 자료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텍스트에 갇힌 사찰 문화 가이드가 아닌 생생한 답사 체험을 지면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문득 찾은 사찰서 지나쳤던 것들
하나하나엔 역사·의미·지혜 담겨
공부·답사로 모은 이야기 보따리
알수록 다가오는 사찰 문화 감동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사찰이나 불교 유적을 다니며 떠오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 주기도 한다. 권말 두 파트에 걸쳐 이야기되는 '절집의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관한 사연'은 옛날이야기를 듣는 듯 즐겁다. 흔하고 오래된 것들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비밀스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옛 조상들의 지혜와 염원도 살필 수 있다.

40여 년간 책상 앞이 아닌 오직 길 위에서 우리 역사와 옛사람들의 문화를 읽어 온 '찐' 답사가의 기록! 뜻밖에 발견한 사찰의 보물들, 그리고 그 역사의 증거가 모인 사찰에 대해 오직 애정으로 정성스럽게 써내려 간 이 책을 통해 알면 알수록 다가오는 사찰 문화의 감동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번 가을 저자가 안내하는 마지막 답사에 동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선암사 해우소는 전남 문화재자료로 지정돼 공식 명칭은 '순천 선암사 측간(厠間)'으로 돼있다. 1920년 이전에 지어졌다고 하니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건물이다.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건물을 앉혔으며 언뜻 보면 해우소인지 사찰 부속 건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산뜻하다. 그런 유명세 탓에 선암사를 찾는 방문객은 꼭 찾아서 둘러보는 장소가 됐다. ©불광미디어



전등사 대웅전 수미단은 보탁을 포함해 계단식 3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방식이다. 보탁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떼어 놓을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데 지금은 어느 절에나 상단에 고정시켜 놓았다. ©불광미디어

▲저자 **노승대 작가**는

1975년 입산해 광덕 스님을 은사로 모셨으며 10여 년 뒤 하산했다. 구도의 길에서는 내려왔으나 그 길에서 찾았던 '우리 문화'에 대한 열정은 내려놓지 않았다. 1993년부터 문화답사모임 '바라밀문화기행'을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2000년부터 7년간 인사동문화학교 교장을 맡기도 했다. 인사동문화학교 졸업생 모임인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과도 전국 문화답사를 다니고 있다.

답사 틈틈이 〈불광〉, 〈사람과 산〉, 〈템플스테이〉 등에 우리 문화와 관련된 글을 기고해 왔으며, 저서로 〈사찰 속 숨은 조연들〉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바위로 배우는 우리 문화〉가 공저로 〈나를 채우는 섬 인문학, 강화도〉가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애불을 답사하다 보면 불교 이전부터 전통적 기도터로 쓰였던 바위 신단에 마애불이 새겨진 경우가 많다. 근처에는 샘이나 계곡이 있고, 그 분위기 자체도 심상치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결국 오랫동안 한민족의 전통 신단으로 쓰였던 곳에 불교의 마애불이 나타나고 암자가 들어서면서 불교 사찰로 변모했다는 뜻이다. 이렇듯 마애불이 있는 곳에서는 불교 이전의 역사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25쪽

오랜 과거 무불상시대에는 존귀하신 부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서 부처님 발자국이나 깨달음을 이루신 보리수나무, 그리고 연꽃, 법륜(法輪) 등을 조각해 부처님의 상징으로 삼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신앙물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불탑이었다. –93~94쪽

〈대반열반경〉에는 '중생은 번뇌의 어두움 때문에 지혜를 잃는 데 반해 부처님은 방편으로 지혜의 등을 켜니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한다'는 말씀도 있다. 결국 등은 중생 구제를 위해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와 언제나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이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영구적인 시설로 만들려는 시도가 생기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석등(石燈)'이 출현하게 된다. –160쪽

불교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대원불교학술총서



철학으로서의 불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 대학의 철학과 교재! 불교의 철학 전통과 불교사상의 기본 교리를 흥미롭고 분석적으로 소개하였다.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 648쪽 / 38,0000원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인 스토아철학이 보여주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과 상호 영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 152쪽 / 12,000원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문일수 지음 / 360쪽 / 2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 392쪽 / 20,000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 316쪽 / 20,000원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향 제시!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 368쪽 / 25,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 456쪽 / 23,000원



백운·태고·나옹의 선어록에 대한 문예 미학적 접급!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 312쪽 / 20,000원



가장 뛰어난 제자 24인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 728쪽 / 40,000원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 360쪽 / 20,000원



직접성과 즉각성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 696쪽 / 4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상용의식 오류 찾아 바로잡기 나서다



불교상용의식해설: 예식의궤를 중심으로
혜천 정오 · 우천 이성운 공역
정우북스 / 2만원

정오 스님, 이성운 교수 역해
일심봉청→일심예경 등 수정
"상용의식, 불자들도 알아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어산종장 정오 스님이 새로 발간한 〈불교상용의식해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종교에서 '의례'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행 · 신앙 체계를 구체적 실천행위로 보인 것이다. 넓게 보면 예배행위를 비롯해 해당 종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상용의식, 생활의례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신자들은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며, 교단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의식들을 형성하게 된다. '의례'가 바르고 정확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계종 어산종장 혜천 정오 스님(한국불교전통의식전승원 학장)과 우천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가 공역한 〈불교상용의식해설: 예식의궤를 중심으로〉는 바른 불교 의례를 위한 노력들이 담겼다.

정오 스님은 "불교 의례는 불교 이념과 사상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며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는 것은 나의 삶과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붓다를 스승으로 삼아 따르겠다는 서원을 최상의 예경인 정례로 표현하는 것이고, 경전이나 다라니를 염송하는 것은 그 길을 다시 듣고 서원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의례는 불교를 실천하는 몸짓이다. 결국 의례를 잘하는 것이 불교를 잘하는 것"이라며 "이젠 상단불공(예식)은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상용의식'에 대한 개념도 정리했다. "특정 신불을 소청해 권공하는 수륙재 형식이 아닌 봉안해 모시고 신행하는 사람들과 공양을 드리고 축원하는 형식"임을 분명히 했다. 상단 중단 등의 권공, 시식과 영반, 대령과 관욕, 예경문 등 일상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의식을 상용불교의식으로 수용했다.

종전의 불공이라는 표현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이므로 신중불공 지장불공이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점도 지적한다. 이에 대해 역자들은 "기존 권공은 거불 · 보소청진언 · 유치 · 청사 · 가영 · 헌좌진언 · 정법계진언 · 4다라니 · 예참 · 운심공양진언 · 보공양진언 · 보회향진언 · 원성취진언 · 보궐진언 · 탄백 축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의식은 지금 설단된 곳에 공양 올릴 대상이 계시지 않아 청하여 모시고 올리는 공양의식"이라며 "현재 권공의 대상은 대부분 불전이나 각단 혹은 각 전각에 조상 · 봉안 · 점안해 신불로 신앙하고 있으므로 아침저녁 예경을 하듯이 특정의 공양을 권할 때가 되면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드리고 연유를 아뢰고 권공을 하면 법식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새롭게 의례를 재편하기보다는 기존 의례를 수정하는 데 방점을 둔다. 예를 들어 "일심봉청(일심으로 받들어 청합니다)" 하는 구절을 "일심예경(일심으로 경례 올립니다)"으로 교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강림도량(도량에 강림하십시오)" 하는 것을 "불사자비(자비를 버리지 마시고)"라고 하여 "이곳에 오셔서 공양을 받으시라"를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공양을 받아주소서"라는 식으로 유치문을 교정했다.

역자들은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봉안된 신불에게 권공하고 시련 대령, 반혼재 등의 기존 의례의 개념을 재정립해 해설하고 있는 점"이라며 "그런 까닭에 새로운 의례를 축조하기보다 의례의 본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으로 전통 의례를 편집 · 번역 · 해설했다"고 밝혔다.

원로 민속학자의 구법여행

목포 정혜원부터 부산 해동용궁사
약 1300㎞ 직접 걷고 써낸 기행문



남해안 108 성지순례 ① · ②
김용덕 지음
북마크 / 각 1만6000원

민속학계 원로인 김용덕 한양대 명예교수는 민속학뿐만 아니라 한국불교계에도 고마운 존재다. 그동안 불교민속과 관련된 논문이나 저서를 다수 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인 연등회와 수륙재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이끈 공신이기 때문이다. 9년 전 강단을 떠나며 〈한국 불교민속문화의 현장론적 고찰〉을 펴낸 그가 이번에는 학자가 아닌 부처님 법을 찾아 여행하는 '남순동자(선재동자)'가 됐다.

〈남해안 108 성지순례〉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을 따라 약 1300㎞에 분포한 전통사찰을 직접 걸어서 순례한 기행문이다.

대상 사찰은 창건 100년이 넘은 옛 절. 목포 유달산 정혜원을 시작으로 부산 기장 해동용궁사까지 약 2년에 걸쳐 이어진 구법여행은 지난날에 대한 저자의 발로참회다.

어린 시절 출가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도 제대로 된 수행을 해보지 못했다는 성찰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특히 일본 헤이안시대 고승인 홍법대사 쿠카이 스님의 발자취가 남은 시코쿠 '오헨로' 순례길 체험은 저자가 국내 전통사찰 순례를 기획한 밑거름이 됐다.

〈남해안 108 성지순례〉는 단순히 108개의 전통사찰을 소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행문이듯이 저자가 직접 겪은 도로 사정이나 거리, 숙식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다. 여기에 사찰의 폐사나 중건 역사를 간략하게 기술하면서도 불교 교리나 상식에 대한 설명도 더했다. 또 '조계산 천자암'에서는 젊은 세대가 체험하지 못한 보릿고개를 가수 진성의 노래에 빗대 친근하게 읽히도록 경험을 풀어내고, '천태산 개천사'에서도 가수 나훈아의 '공'을 통해 불교의 공사상을 설명한다.

김용덕 명예교수는 "산티아고를 순례하는 사람 5명 중에 두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일본에도 세계인이 찾는 여러 순례길이 있다"며 "이 책은 직접 순례를 떠나는 사람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가이드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 잡지 톺아보기

사찰로 온 헤라클레스를 만나다



월간 〈불광〉 11월호

불광출판사가 발행하는 불교 대중문화잡지 월간 〈불광〉 11월호(통권 589호)가 발간됐다. 이번 달 특집 주제는 '금강역사; 사찰로 온 헤라클레스'다. 사찰에 들어가면 일주문을 지나 금강역사가 있는 금강문, 사천왕이 있는 천왕문을 지나야 법당에 다다를 수 있다. 간다라 지역에서 붓다의 호위무사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금강역사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후, 사찰 입구에서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금강역사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의 형상을 차용한 것은 특이하다. 네메아의 사자를 죽인 후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가죽을 팔에 걸치거나 머리에 썼는데, 간다라 지역 금강역사의 초기 도상에 이 모습이 표현돼 있다. 금강역사가 헤라클레스를 통해 그리스 문화를 간직하며, 중국을 지나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다.

월간 〈불광〉 11월호에서는 수문장 역할을 한 금강역사의 초기 모습을 석굴암과 석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초기 석탑을 조성할 때 법당을 형상화해 문을 조성했는데, 한 쌍의 금강역사가 석탑의 문을 지키고 있다. 후대로 갈수록 석탑에 사천왕상이 조각되는데, 화엄사 사사자 석탑 등을 통해 변화과정을 살펴봤다.

한편, 금강역사에 대한 그간의 오해를 새롭게 해석하는 글도 실렸다. 한 쌍의 금강역사 중 한 구는 입을 다물고 한 구는 입을 열고 있는데, 지금까지 범어의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범어의 '아'와 '흠'으로 해석했다. 임영애 교수는 입을 열고 닫는 것은 '음양'을 표현하는 지극히 중국적인 문화로 지적했다.

유근자 교수는 우리나라 사찰에 금강문 외에 명부전 나한전 등에도 금강역사상이 조성되는데 이는 '장군상'이며, 아울러 '장군상'의 모습이 금강역사상으로 조성되는 과정도 살폈다.

△ 간다라 불전미술과 금강역사 △중국 금강역사상의 변신 △신라 문화의 수호자 금강역사 △사천왕과 금강역사 △장군상과 금강역사 △도량의 호법신장, 팔금강 등 금강역사의 요모조모를 알 수 있는 특집 원고들이 수록됐다.

신중일 기자

건강관리 해법, 불교에 있다



월간 〈불교문화〉 10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불교 대중문화지 월간 〈불교문화〉 11월호(통권 279호)가 발간했다.

〈불교문화〉 11월호 특집은 '최고의 건강관리, 불교에 답 있다'이다. 특집에서 문일수 동국대 WISE캠퍼스 의과대학 교수는 '명상으로 마음 건강 지킬 수 있다'를 주제로 코로나 블루의 대응 방법으로 명상을 통한 사띠 힘을 기를 것을 제안하며,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존재 양식의 삶을 살기를 권한다.

김종우 강동경희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마음챙김으로 하는 운동과 신체 건강'을 주제로 현재 인류가 겪는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활동 부족을 지적하며 건강한 활동은 마음챙김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마음챙김 걷기를 소개했다. 문성희 자연 요리 연구가는 '채식이 내 몸을 살린다'를 주제로 채식 생활은 생태와 환경을 덜 더럽힐 뿐 아니라 몸의 파동을 안정시키고 의식을 차분하게 만들어줘 수행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목탁소리 지도법사인 법상 스님은 '자비명상으로 실천하는 건강한 삶'에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먼저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볼 것을 제안했다.

김태겸 수필가는 '불교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는 건강한 삶'을 주제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 사회복지단체들을 소개하며 불자들에게 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를 바탕으로 사회봉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2023년 하반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 캠페인은 진윤주 프로젝트 기획자가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의 상징인 패스트 패션(fast fasion)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이 밖에도 '자현 스님의 비하인드 팔상도, 수하항마상도', '문화재의 시선으로 보는 절집 이야기, 사천 다솔사' 등 풍성한 읽을 거리를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다!

6년여에 걸친 대작 불사
우리 역사와 정신문화의 총체를 담은
불교 문헌 10권을 엄선하여 영역하다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본 10권 완간
Selected Works of Korean Buddhism



대한불교조계종 — 불광출판사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본10권

1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Avataṃsaka-sūtra (화엄경 문답)
2 Seon Thought in Korean Buddhism (한국 선사상)
3 The Moon Reflected in a Thousand Rivers (월인천강지곡)
4 Biographies of Eminent Monks of Korea (한국 고승전)
5 Buddhist Apologetics in Early Modern Korea (조선 호불론)
6 The Orthodox Path of Seon (선문정로)
7 Pure and Fragrant (맑고 향기롭게)
8 The Ontology of Seon (선의 세계)
9 Buddhist Thought of Korea (한국의 불교사상)
10 Korean Buddhist Sculpture (한국의 불상)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39 여기 있었군 1

▶한줄 요약
이석원이 아디카야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그에게는 현지인 아내가 있었고, 그의 아내는 술집에 팔려갔다.



아디카야, 빈자의 수호신 · 하늘의 원초불

-모르겠소.

-모르겠다? 정말이오?

이상하게 여인이 미워져 내가 심통 사납게 물고 늘어졌다.

여인도 심기가 상했는지 벌컥했다.

아 가보면 알 것 아니오? 그년 여기 살 때 그렵디다. 집을 빼려고 하는데 나가질 않는다고. 누가 이런 썩어빠질 놈의 집구석에 들어오려고 해야지. 몇 달 머물 여행객이나 들여야 하는데. 문제는 그놈이야.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을 잔뜩 끌고 나타나서는 난리를 피우더니 그 길로 가고선 코빼기도 보이질 않아요. 누군가 그러는데 가꿈이라던가? 거기 있는 트라트웬인가 하는 사원에서 보았다고 합디다.

-그가 누굽니까? 그를 보았다는 사람이?

-그건 나도 모르겠소. 나도 그저 들은 소리니까. 허이구 드런 놈 제 여편넬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버젓이 수행하는 거 보면 부처님은 뭐 하는 양반인지 몰라 그런 놈 안 잡아가고….

-그럼 그 여자가 있다는 술집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미노도 집이요. 이 길로 똑바로 가다가 시장통 여우 골목으로 빠지면 금방 보일게요. 어이 드런 놈의 집구석.

여인은 생각하기도 몸서리난다는 듯이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치를 떨며 들어가 버렸다.

-이거 어떻게 되어가는 거야?

심 작가가 중얼거렸다.

-이석원에게 여자가 있었다? 여자가 있을 리가 있나?

오오스마 기자가 아무래도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여기 와서 만났겠지. 예전부터 들락거렸다고 하니. 아무튼 그 여자나 찾아봅시다. 그럼 밝혀지겠지.

심 작가가 말했다.

나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머릿속에 어지러웠다. 천추사원에서 그림이나 그리던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따로 방을 얻고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아들은 아내를 얻고 살다가 그 여자를 창녀촌에 팔아먹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다. 그들이 인도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셋집을 얻고 아내를 얻고…. 이석원은 젊은 몸이었으니 일탈을 꿈꿀 수는 있다. 그림을 그려 판 돈으로 그만의 공간을 얻을 수도 있고 여자를 들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사창가에 판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다.

걸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종종걸음을 치면서도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무엇인가 잘못짚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이것은 막연한 육감이 아니라 그의 행적으로 봐 여자가 있을 리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를 사창가에 팔아먹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도 이곳의 여자를?

여인이 말해 준대로 시장통에서 미노도 집을 찾았다. 시장 골목을 끼고 잠시 나아가자 건어물 가게를 끝으로 골목이 다시 밝아지면서 술집이 즐비하게 나타났다. 쉽게 찾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미노도 집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불 꺼진 붉은 전등이 추녀 끝에 달린 술집 문을 밀고 들어가자 사십 대의 주인 여자가 나왔다. 마른 명태처럼 살이라고는 없는 여자였다. 그녀는 왜 시오레란 여자를 찾느냐며 가르쳐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오오스마 기자가 기자 신분증을 내밀며 그녀의 오빠라고 해서야 뒤탈이 겁나서인지 주인 없는 방을 열어 주었다. 그녀는 벌써 나간 지 일주일이나 되었다고 했다. 방문을 열자 썰렁한 방안에서 비릿한 비린내만 풍겨 나왔다.

나는 얼른 돌아섰으면 싶었지만, 이리저리 둘러보던 오오스마 기자가 미련을 부렸다. 그는 분명히 육감적으로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었다. 아마도 신문기자로서의 민감한 예지가 발동한 모양이었다. 그는 방안으로 쓱 들어갔다. 주인이 도끼눈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머리맡 베개 밑에서 빨조롬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는 집어 들었다. 무언가하고 고개를 빼고 보았더니 그것은 조그마한 치부책이었다. 일기장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손님들 받은 날짜와 횟수 화대를 기록해 놓은 공책인 것 같았다. 오오스마 기자가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주인을 돌아보았다.

-이빠오레가 누구요?

-이빠오레? 누군 누구요. 그 가시내와 한방 쓰던 년이지.

주인 여자가 이마에 쌍심지를 세우고 말했다.

-그 가시내가 누구요?

-누구긴 누구야. 시오레 년이지.

-시오레라면 아디카야의 아내?

오오스마 기자가 중얼거리며 심 작가를 쳐다보았다.

심 작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오스마 기자는 아마도 치부책의 표지에서 이빠오레란 이름을 발견했던 모양인데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주인 여자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 이 여자는 어디 있소? 이빠오레란 여자 말이오?

-어디 있겠소. 그년하고 나간 지가 벌써 일주일째인데.

-같이 나갔단 말이오?

-그라요. 간다 온다 말도 없이 둘이 함께 나갔소.

오오스마 기자가 노트 갈피를 넘기며 대충 보더니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게 그것을 넘겨주었다.

-그래도 영어를 쓰는 것을 보니….

오오스마 기자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받아 보았더니 그의 말대로 영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지 여기는 영어와 인도어가 공용이지. 필리핀, 몰타 등과 유사한 형태의 영어. 워낙 많은 형태의 지역 방언이 있어서 국가통합을 위한 공용어로 영어를 별도로 두고 있지만 고등교육 이하의 수준에서는 영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치 않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오오스마 기자의 말은 영어를 쓰는 것을 보니 그렇게 못 배운 애는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었다. 낡고 지저분한 표지 아랫단에 이빠오레란 영자 이름이 또박또박하게 쓰여 있었지만, 수준이 알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것을 한 장 한 장 들춰 보았다.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맥주 몇 병 값에 하룻밤 몸을 던진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다. 그때마다 화대는 대부분 포주의 손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대충 훑어보고 멍하니 섰는데 어느새 방을 나간 오오스마 기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시오레라는 여자가 이곳에 온 지 오래되었소?

-아버지 수술비 없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온 년이요. 처음엔 참 순진했었는디 어디 이 바닥이 그래야지.

-그럼 아비가 딸을 판 거요?

그렇게 묻는 오오스마 기자를 보았더니, '아디카야란 사람이 판 것이 아니고' 하는 말이 불쑥 나오려다가 목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다.

-아무리 금수라 해도 아비가 딸을 팔 것소. 그년이 처음 지원해서 왔소. 나중에 아디카야라는 사내가 들락거렸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 남편이라면 헌금이라도 받아서 제 마누라 빼내려고 했을 테지 그러고 놔뒀것소. 시오레 년이 말을 안 들었소. 그년도 어린 것이 대단합디다.


삽화 · 김상구

-그럼 아디카야라는 사람이 누구요?

심 작가가 확인하려는 듯이 물었다.

-누군 누구요, 이석원이란 놈이지.

-이석원? 정말 그의 이름이 아디카야였소?

-그렇소. 그 작자 이름이 그 나라 말로 이석원인가 뭔가라고 합디다. 그놈은 이 바닥에서 소문난 놈이었소. 외국 놈이 겁 없이 뭐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놈인데 꼴에 별명이 고상도 하지.

-별명?

-그라우. 별명. 아디카야가 그거 아니오. 마음이 한없이 맑은 사람. 가난한 이의 수호신. 가난한 방랑자, 하늘의 원초불 아디카야라고.

-하늘의 원초불?

-그라요. 그자가 가난한 이들의 수호신이었다고 하오. 저 다리 밑에서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 밥해 먹이고 돈 떨어지면 노동하고, 뱀 잡아 팔고, 그래 배고픈 사람 밥해 먹인다고 합디다. 꼴에….

-그럼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오?

-그걸 내가 어찌 알것소. 얼마 전까지는 보이는 것 같았는데 말도 마쇼. 그놈 때문에 뛰쳐나간 년이 몇이나 되는데…. 아, 왜겠소. 창녀질 안 한다고 뭐 공장에서 일이라도 해서 그놈을 돕겠다고 순 도둑놈 같은 게…. 왜 그놈이 무슨 짓이라도 저질렀소?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돌아서는 그를 내가 잡았다.

-이대로 그냥 가려구요?

-왜요?

-더 알아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해서…?

-아닙니다.

무슨 생각에선지 오오스마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먼저 술집을 빠져나갔다.

이석원이 누군가?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지 않은가?

술집 골목을 벗어나면서 내가 나에게 물었다. 어쩐지 가슴속에서 시뻘건 불길 같은 것이 자꾸만 뻗쳐올랐다.

-이석원이 이곳을 드나들며 천사 짓을 하고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오오스마 기자가 내 심중을 읽은 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게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넷이 술집을 나와 한참을 걸어가는데 미노도 술집이 보이지 않을 때쯤 오오스마 기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심 작가가 눈치를 채고 그에게 물었다.

-왜 그래?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심 자가와 내가 동시에 돌아보았다. 이제 스물이나 되었을까? 허름한 옷을 걸치고 머리를 뒤로 묶은 처녀가 얼른 우리들의 시선을 피해 골목으로 몸을 숨기는 것 같았다.

오오스마 기자가 심 작가를 끌고 옆 골목으로 잽싸게 피했다. 나와 송 서화가도 그 뒤를 따랐다. 골목에 숨어 지켜보니까 처녀가 다가오며 두리번거렸다.

-우리를 찾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좀 더 기다려 봐요.

심 작가의 말을 들으며 잠시 기다리자 처녀가 골목 앞으로 내려가다가 우리를 발견하고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를 찾습니까?

심 작가가 그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처녀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혹시 시오레를 압니까?

처녀가 머리를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데리고 가까운 찻집으로 들어갔다. 차를 시키고 사정을 물었더니 그녀는 미도노 술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단다. 아버지가 자신을 술집에 팔았는데 난처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시오레 언니가 잘 돌봐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계속〉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⑳ 출생의례 (下)



▶한줄 요약

부처님 당시 수달타 장자는, "아이가 태어나면 삼귀의와 오행을 받도록 가르치고, 자라서 지견(知見)이 생겼을 때 다시 계행(戒行)을 가르친다" 하였다. 불성(佛性)을 지닌 모든 아이가,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에 있기 때문이다.

마을로 내려 오신 미륵…아이를 점지하다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마을로 내려오신 미륵'을 만날 수 있다. 폐사된 절터에서 업어온 부처님을 미륵으로 모시기도 하고, 특별한 암석이나 땅속 · 바다 · 강에서 나온 큰 돌을 세워놓고 미륵으로 받들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에 모신 미륵을 아기 점지를 바라는 기자신앙(祈子信仰)의 대상으로 섬긴 전통은 뿌리가 깊다.

미륵이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보편성을 지니게 된 것은, '구세주적 성격'과 '존재 방식의 친연성'에서 찾을 수 있다. 미륵은 석가모니 입멸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났을 때 세상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는 미래불(未來佛)이다. 따라서 현실의 고난과 모순을 해결하고자 미래에 강림하는 구세주적 성격을 지녔을 뿐 아니라, 수 세기에 걸쳐 권위를 벗어버린 채 민중과 유사한 모습으로 그들 곁에 존재하는 친연성을 지녔다.

특히 기자신앙 대상으로서 미륵은 미래의 부처로,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영웅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구세주 탄생'과 개인의 '후손 탄생'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륵신앙은 언제나 현실을 개혁하고 이상세계를 건설할 실제의 영웅 탄생에 대한 갈망을 동반하고 있으니, 미륵이 아기 점지를 바라는 신격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셈이다.

미륵이 성전(聖殿)에서 마을로 내려가게 된 데는 남아선호사상이 큰 역할을 하였다. 민간에서는 우뚝한 바위가 있으면 남근을 닮았다 하여 기자석(祈子石)으로 여겼는데, 돌미륵 또한 일종의 기자석으로 수용한 것이다. 기자석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 미륵이라면 영험함이 더욱 커질 것이고, 남근석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돌부처(미륵)의 코를 갈아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담론이 생긴 것도 '미륵=남근'이라는 남성성을 공유하면서, 코가 지닌 성적 상징의 효험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륵이 아닌 석불도 '돌로 만든 부처=미륵'으로 일반화되어 코를 잃었던 것이 근래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주술적 영험에 대한 믿음'이 '신성 훼손의 금기'를 이긴 셈인데, 이는 미륵과 남근의 결합에서부터 시작된 지극히 민속적인 역설이라 하겠다.

이처럼 민간에서 섬기는 대부분 미륵은 잠정적 남성으로 설정되게 마련인데, 반대로 여성의 정체성을 지닌 일련의 미륵도 살필 수 있다. 이를테면 경북 의성군 옥연리에는 '할머니 미륵'이 있는데, 이 미륵에게 빌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먼 곳에서도 많은 이가 찾아와 정성을 들였다. 함평 아차마을의 미륵 역시 언제부턴가 '미륵할머니'로 불렸는데, 제단 앞에는 기자석 4개가 놓여 있어 자식 없는 이들이 찾아와 아들 낳기를 빌었다.

미륵의 남성성이 장차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여성성은 아이를 생산할 능력을 지닌 어머니를 뜻한다. 자식 점지를 비는 일에서 출산능력을 지닌 모성의 힘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 '미륵할머니'라 부르며 미륵을 여성으로 섬기는 유형도 자연스레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때 할머니 미륵은 출생을 주관하는 '삼신할머니'와도 통하는 것일 터이다.



부처님과 아이들. 운문사 대웅전 외벽화

이처럼 민간에서는 불교의 교리적 의미와 무관하게, 미륵을 그들의 논리에 따라 기자의 대상으로 수용해왔다. 특히 기자석과 돌미륵의 결합은 민간의 역동적 · 탄력적 사고에 따라 생겨난 독특한 결과물이라 하겠다.



조계사 어린이 수계법회.

옷에 향기가 스며들 듯, '훈습'의 태교

인디언 여성들은 아기를 가지면 태아에게 평화로운 목소리로 이야기해주고, 자연의 소리를 들려준다. 어느 문화권이든 부모가 되면 태중의 생명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저절로 알게 된다. '부모의 선한 행동이 아이에게 미쳐서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것', 이것은 태아를 품은 부모이기에 본능적으로 가능한, 위대하고 신성한 과업이다.

마야부인은 싯다르타를 잉태했을 때, 남편 정반왕에게 "중생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몸과 말과 뜻으로 선을 닦으며, 죄수들을 널리 용서해 풀어주고, 보시로 가난한 이를 구제하도록" 부탁하였다. 아기를 위해 아버지로서 마음을 닦아 태교에 힘써주고, 왕으로서 베풀 수 있는 선과 자비를 다하도록 청한 것이다. 이전 존재의 업과 부모의 업이 작용하여 새 생명의 씨앗이 맺어졌지만, 태아는 잉태 순간부터 현세의 주체적 존재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참으로 중요하다. 부모는 태아보다 능동적 입장에서 서로의 인연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전에서는 부모의 선근(善根) 공덕이 태아에게 전달되면, 태아의 업 종자가 자력으로 선업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훈습(薰習)'이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하다. 옷에 향기가 계속 스며들면 옷 자체가 향기를 만드는 원인이 되듯이, 부모의 지극한 태교가 아기에게 배어들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불설포태경(佛說胞胎經)〉에서는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먹거나 적게 먹으면 태중 아기가 불안하며, 기름기 많거나 없는 것을 먹어도 그러하다… 음식이 고르지 못하거나, 색욕이 과하거나, 바람받이에 있거나, 나무에 올라도 아기가 불안해하니… 그 고뇌와 근심과 어려움이 이러하다"고 하였다.

전통 태교는 출발점에 대한 인식이 현대와 달랐다. 대개는 아기를 잉태한 순간부터 태교가 시작된다고 보지만, 옛사람들은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요인을 고려하여 잉태 전부터 생명의 탄생을 경건하게 준비한 것이다. 부모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 심리적 건강이 장차 모태에 들어설 새 생명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 우연이라 보지 않고, 평소 심신을 가다듬으며 소중한 새 생명과 인연을 가꾼 것은 매우 불교적이다. 일명 '씨 내리기 날'이라 부르는 귀숙일(貴宿日)을 받았던 것도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해 새 생명을 맞기 위함이었다. 또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아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되는 지혜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쳤다.

한 단계씩 고비를 넘기며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에는 아기가 태어난 뒤에도 삼칠일을 지나 백일과 돌을 맞을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다. 특히 귀한 자식일수록 악귀가 해코지한다고 여겨 이름도 '개똥이 · 천둥이' 등으로 천하게 지어 부르다가, 중요한 시기를 한 단계씩 거치면서 무사히 고비를 넘기면 안도감과 함께 공동체의 잔치로 축원하였다.

불자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사찰에 이름 올리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사시불공을 올리는 스님이 부처님 전에 그날의 기도자 이름을 읊을 때, 아기를 위한 축원 기도를 청하기 위함이다. 축원대상이 불보살께 공양 올리는 공덕으로 가피를 받는다는 구도를 지녀,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중요한 날마다 축원 기도를 청하는 것이다.

출생의례가 따르는 삼칠일(3 · 7일), 백일, 돌은 시기마다 상징성이 각기 다르다. 출생 직후인 삼칠일이 금기와 근신에 중점을 두는 시기라면, 백일은 심리적 · 상징적으로 한고비를 넘어서는 지점에 해당하고, 온전히 한 해를 무사히 보낸 돌은 실제 고비를 넘겼다고 보아 본격적인 축하가 따르는 시기이다.

삼칠일은 출생의례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금기의 시간이다. 갓 태어난 아기와 산모는 부정(不淨)에 노출돼 있다고 보아 금줄을 치면서 외부와 격리하는 일이 핵심을 이룬다. 또한 초이레, 두이레, 세이레마다 상을 차려놓고 삼신할머니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보살핌을 빌었다. 아기는 이레마다 깃이 없는 옷에서 있는 옷으로, 몸을 감싸는 강보에서 저고리로, 저고리에서 바지저고리로 바꾸어 입혔다. 이는 성장에 따른 실제적 대응이자 미완의 존재가 온전한 생명체로 진전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다.

또한 산모의 기력을 북돋우기 좋은 음식으로 정성을 기울이고, 불수산(佛手散)이라는 탕제를 달여 먹이기도 하였다. '부처님의 손'이라는 이름처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한 것이다. 이처럼 삼칠일은 갓 태어나 외부세계에 노출된 아기와 오랜 산고를 거쳐 회복이 필요한 산모를 물리적 · 관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 하겠다.

백일은 채워야 할 기간, 많은 날을 뜻하는 상징적 기간이다. 백(百)의 고어는 '온'이고 '모든 것'를 뜻한다. 단군신화에서 사람 되기를 간청한 곰과 범에게, 환웅(桓雄)은 "굴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만 먹으며 백일 간 인내하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이때의 백일금기[百日忌]가 신의(神意)를 얻을 만큼 꾸준히 근신하라는 의미였듯이, '백일기도'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감응 받을 수 있다는 종교적 기간으로 정착되어 있다.

돌은 가장 실제적이고 보편적인 출생의례 단계이다. 생후 1년의 돌맞이는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세상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뜻하여, 불공을 올리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며 감사와 축원이 따르는 것이다. 아이는 이제 세상에 나와 친구를 사귀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점차 뚜렷한 자아를 형성하며 성장해갈 터이다.

부처님 당시 수달타 장자는, "아이가 태어나면 삼귀의와 오행을 받도록 가르치고, 자라서 지견(知見)이 생겼을 때 다시 계행(戒行)을 가르친다" 하였다. 불성(佛性)을 지닌 모든 아이가,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에 있기 때문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⑳ 석굴암의 비밀 (4)



▶한줄 요약
석굴암 본존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항마촉지인, 마군을 항복시키다

대승불교의 전통에는 석가모니불 이외에도 아미타불 · 비로자나불 · 노사나불 · 미륵불 · 약사불 · 연등불 등 다양한 부처님이 등장하게 된다. 무수한 부처님들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식별하는 핵심적인 특징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손 모양(수인)이다.(도판 ①~④) '항마촉지인'은 한자 그대로, '촉지(觸地, 땅을 가리키다 또는 어루만지다)' 하자 '항마(降魔, 악마가 항복하다)'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땅을 가리켜 악마를 물리쳤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모든 장애를 물리침과 동시에 정각의 일어난 순간이기에 '석가모니가 도(道)를 이룬 상'이라 하여 항마촉지인의 붓다상을 '석가모니 성도상(成道像)' 또는 '석가모니 대각상(大覺像)'이라고 일컫는다.

'항마촉지인'의 수인

깨달음을 끊임없이 방해하던 마왕은 태자가 이미 깨달아 붓다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출현한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증명해보라"고 한다. 마지막 의심이 생겨났다. 깨달음을 '대상화' 하는 '의심이라는 에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붓다는 크나큰 선정에 든 것을 상징하는 선정인(禪定印)의 수인에서, 오른손을 풀고 검지를 들어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한다. 선정(定)을 바탕으로 통찰지(慧)를 발휘한 것이다. 한 손은 정인(定印)이고 다른 한 손은 촉지인(觸地印)으로, 항마촉지인 자체가 '정(定)+혜(慧)'의 수행법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자 대지(大地)가 크게 진동하였다. 〈대열반경〉에는 '대지가 진동하는 8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대목을 보면 "여래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을 때, 땅이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땅의 큰 흔들림이 일어나는 원인이다"라고 명기돼 있다. 그러자 지신(地神)이 나타나 붓다의 깨달음을 증명하였고, 이에 마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최종적인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정점을 찍는 수인이 바로 '항마촉지인'인 것이다.

마왕와 마군의 정체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리는 왜 고통스러운가'라는 질문과 같다. 에고(아상)는 '나'라는 허상을 끊임없이 만들면서, 주객을 분리하는 일을 한다. 본래 '하나'였는데, 그것이 계속 분리가 일어나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통의 어원은 두카(duka, dukka)인데, '분리'라는 뜻이다. 에고라는 무명을 바탕으로 '탐(貪) · 진(瞋) · 치(痴)'가 일어난다. 석가모니 붓다는 이것을 '마라(Mara)'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마군(魔軍, 악마의 군대)'이란 뜻이다. 마군은 이번의 한 평생을 물론이고 세세생생 끈질기게 끊임없이 공격을 퍼붓는다. 그런데 우리는 에고에 그토록 시달리면서도 시달리고 있는 줄도 모른다. 에고가 세세생생 만들어놓은 존재에 대한 집착과 욕망의 길은 미끄럼틀처럼 견고하게 닦여, 아주 조그마한 자극에도 제 갈 길을 가버린다.

이미 우리의 몸체에 장착된 육근(六根)에는 전생(前生)에서부터 가지고 온 업식(業識 또는 업장)이 내장돼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는 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육근이란

집착과 갈애가 마왕과 마군의 정체
붓다 수행과정서 항상 나타나 훼방
"열반 이르러 모든 욕망 파괴됐다"
석굴암 본존불 대각상의 항마촉지인
마왕 굴복시킨 정각의 모습을 표현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여섯 개의 뿌리로 눈(眼) · 귀(耳) · 코(鼻) · 입(舌) · 몸(身) · 의식(意)을 말한다. '육근과 육경((六境, 형상(色) · 소리(聲) · 냄새(香) · 맛(味) · 촉감(觸) · 관념(法))' (색온, 色蘊)이 만나면서 생기는 느낌(수온, 受蘊), 그리고 순차적으로 서로 쌍방으로 영향을 주면서 생겨나는 상온(想蘊), 행온(行蘊), 식온(識蘊)이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의 전부이다.

이렇게 종횡무진 들끓는 오온(五蘊)이라는 메커니즘의 한가운데에는 마왕이 있다. '나'라는 '에고(아상, 我相)'이 있다. '내가 있다고 착가하는 마음'을 '무명(無明)'이라고 한다. 또는 '치(痴)의 마음(어리석음)'이라고도 한다. 어리석음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어리석음이라고 해서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견(邪見, 삿된 견해)이므로 '유신견(有身見)'이라고도 한다. 그러니 마왕은 '무명'이고 마왕의 군대는 '무명의 작용'이다.









도판①은 석굴암 본존불, 도판②③④는 인도, 태국, 미얀마 불상. 모두 항마촉지인을 수하고 있다. 이는 부처님이 모든 마군을 물리치고 정각을 이룬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무명은 '오온(五蘊)'이라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오온은 '다섯 가지 덩어리'란 뜻인데, 색(色) · 수(受) · 상(相) · 행(行) · 식(識)의 덩어리를 말한다. 이 다섯 가지 덩어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번뇌 망상을 만든다. 부지불식간에 삽시간에 작용하는 오온. 오온의 작용에 속지 않으려면 통찰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통찰지가 없는 우리는 그것이 실제인 줄 알고 반응한다. 반응하면서 다시 오온의 덩어리는 더욱 공고해진다. 한 번 일어난 무명의 마음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지나간 길의 자국이 업식(또는 잠재의식)에 선명하게 그림자를 남긴다. 이렇게 남겨진 그림자들은 차곡차곡 쌓여 업장이 된다.

에고와 반야의 대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에고와 알아차림(또는 무명과 반야)의 길고도 험난한 싸움의 과정이다. 알아차림(반야)가 이기면 결과는 열반이고, 에고(무명)이 이기면 결과는 윤회이다. 열반은 자유이고, 윤회는 고통이다. 자유를 택할 것인가. 고통을 택할 것인가. 유아(有我)와 무아(無我)의 대결. 유아有我를 만드는 무명과 무명의 작용(오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왕과 마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론 석가모니 붓다께서 자신이 터득하신 방법을 밝혀 놓으셨다. (붓다 직설의 실참 수행법이 담긴 초기경전은 19회차 연재를 참조하기 바란다.)

마왕과 마군이 이 꼼짝 못 하는 두 가지 무기는 '사마타와 위빠사나'이다. 사마타는 고요한 마음 '선정(禪定)'을 말하고, 위빠사나는 꿰뚫어 보는 통찰의 '지혜(智慧)'를 말한다. 이러한 선정과 지혜를 합하여 '정혜(定慧)' 또는 '지관(止觀)'이라고 한다. 정혜쌍수(定慧雙修)와 지관겸수(止觀兼修), 모두 붓다 가르침의 핵심을 일컫는 말이다.

사마타와 위빠사나,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이 붓다 가르침의 요지이다. 이것을 시작하는 요체로서 붓다는 '아나빠나 삿띠'라는 호흡 관찰법을 제시하셨다.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힘을 동시에 키우는 최고 최상의 방법이다. 하지만, 아나빠나 삿띠가 요하는 지구력과 인내가 힘든 분들께는, 화두 참구(간화선)라는 우리나라 전통의 사마타 수행방법을 권한다. 초 단기간에 에고의 인식에서 벗어나 바탕자리의 인식과 하나가 됨을 맛 볼 수 있는 우리 선조들의, 우리에게 맞는, 극한 처방인 것이다.

'마(魔)'의 아비담마적 해설

마왕과 마군은 석가모니 붓다가 대정각에 들려 할 때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수행하는 기간 내내 줄곧 따라붙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완전한 열반에 들 정도로 석가모니 붓다의 선정과 지혜의 힘이 막강해졌을 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소멸한다. 이러한 불이(마구니의 소멸과 정등각의 드러남)의 순간을 표현한 것이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석가모니대각상'이다. 석굴암의 본존상은 마침내 마왕을 완전하게 항복시키고 궁극의 열반에 들었음을 상징한다.

마왕과 마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초기경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상윳따니까야〉에는 마구니를 갈애(渴愛, 딴하) · 혐오(嫌惡, 아라띠) · 탐욕(貪欲, 라가)이라고 언급한다. 그 외 〈숫타니파타〉 등에서는 애욕(까마) · 혐오(아라띠) · 기갈(꿉삐빠사) · 갈애(딴하) · 혼침 수면(티나밋다) · 공포(비루) · 의혹(위찌낏차) · 위선과 오만(막카탐바)의 8가지로 세분하기도 한다. 이것이 붓다께서 직접 설하신 마왕과 마군의 내용이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느 것이건 '에고(我相)으로서의 무명'(마왕)과 '이것을 생존 및 유지시키려는 갈애의 작용'(마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붓다의 오도송 마지막 구절에는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모든 욕망'은 파괴되어 버렸네(법구경153 · 154)"라고 나와 있다. 존재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키려하는 '모든 욕망(갈애와 집착)'이 마왕과 마군의 정체이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

이안의 Media In Buddha 26 나운규의 〈황무지〉와 〈아리랑〉



▶한줄 요약
춘사 나운규는 일제강점기 조선 영화의 상징으로 〈아리랑〉 등 민족의 애환이 담긴 영화를 제작했다.

식민지 조선에 영화로 '해방의 영감'을 주다

불교를 두고 어려워하는 오랜 물음 가운데 하나로 '무아'와 '윤회'의 문제가 있다. 무아(無我)란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윤회(輪廻)는 중생이 삶을 다하면 사는 동안 지은 업에 따라서 다른 세상에 태어난다는 믿음이다.

아니, 무아라면 나 자신이 없다는 건데 지은 모든 업을 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건 나라는 것이 여전히 집요하고 굳건히 있다는 것이니 가르침끼리 서로 모순이 아닐까? 이 물음은 불심이 부족하거나 공부가 얕아서 생기는 의심만도 아니고, 불교의 가르침을 트집 잡아보려는 어깃장만도 아니다.

기원전 150년 경 인도 서북부를 점령한 그리스의 왕 메난드로스도 이런 의문을 품었더랬다. 메난드로스 왕이 당대 인도의 비구승 나가세나와 나눈 문답을 모은 〈밀린다팡하〉라는 경전이 있다. '밀린다의 질문'이라는 뜻의 이 경전은 〈밀린다왕문경〉이라고도 하고 〈나선비구경〉이라고도 한다. 서양 사상의 뿌리인 그리스 사람으로서 메난드로스 왕은 불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적으로 질문하고, 나가세나 스님은 다른 문명권에서 온 이방의 왕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 답을 하는데 이 문답이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때 메난드로스 왕은 어떻게 '무아'와 '윤회'가 양립할 수 있는가도 있는가를 따져 물었던 것이다.

나가세나 스님은 이 질문에 대해 촛불을 비유로 들어 답했다. 촛불은 금방 꺼뜨릴 수도 있지만 다른 촛불로 옮겨 붙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촛불이라는 '존재'는 실체가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촛불이라는 '현상'은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하나의 일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무아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를 아울러 보자면 그것이 바로 윤회라고.한국영화사에도 이런 촛불이 있다. '나운규'라는 촛불.

춘사 나운규는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조선 영화의 상징이었던 감독이자 배우였다. 여러 영화를 제작하고 직접 출연했을 뿐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글도 많이 남겼다. 영화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나운규의 〈아리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운규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은 영화학자나 자료수집가들 조차 아무도 〈아리랑〉은 물론이고 나운규가 출연한 어떤 영화도 볼 수가 없다. 한 편도 '필름'이라는 물리적 실체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안다. 나운규라는 빛나는 영화인이 있었고, 식민지 조선의 대중들은 나운규가 만든 영화에 열광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는 나운규를 기리는 춘사영화예술상을 제정하고, 독립에 대한 영화 청년의 공로에 건국훈장을 추서해 국가적으로 감사의 뜻을 죽은 후에라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마침 10월 20일, 21일 이틀에 걸쳐 '나운규의 〈나의 러시아 방랑기〉와 시나리오 〈황무지〉 입체낭독 공연'이 펼쳐졌다. 이 행사는 시청각 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시청각유산의날인 10월 27일 즈음에 한국영상자료원이 매년 의미있는 영화 관련 시청각 문화유산을 되살리는 특별한 기획이니 영화와 영화인에게는 그야말로 새로운 삶으로의 윤회와도 같다고 할까. 더구나 1902년생인 나운규가 태어난 날이 바로 세계시청각유산의 날이 된 날짜인 10월 27일이니 전설이 된 인물을 되살리는 듯 한 공연이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10월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 '나운규의 〈나의 러시아 방랑기〉와 시나리오 〈황무지〉 입체낭독 공연'의 모습.

일제강점기 조선 영화 상징 '나운규'
아리랑 등 민족 애환 담긴 영화 제작
구속받지 않는 인간상 위해 광인 연기
당시 관객들에게 영감과 해방감 선사

나운규는 영화를 통해 구속받지 않는 인간을 그리기 위해 미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나운규의 발원이 식민지 조선의 관객들에게 어떤 영감과 해방감을 주었을지는 영희 역을 연기한 신일선 배우의 회고로 짐작할 수 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며 목 놓아 울기도 했고, '아리랑'을 따라 부르기도 했으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까지 했다고 한다. 평양 상영관에서는 관객이 너무 많이 들어 극장의 들보가 부러질 정도였다니 영화 속 미치광이 청년에 담긴 나운규의 발원이 촛불이라면 식민지 조선의 관객들은 그 촛불에서 옮겨 붙어 꺼지지 않는 촛불들이었으리라.

모쪼록 새롭게 살아난 이 공연이 한국영상자료원이 무성시대 영화를 발굴해서 되살려낸 〈청춘의 십자로〉나 〈이국정원〉과 같은 작품들처럼 여러 곳에서 오래오래 관객들을 만나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뜻을 밝히게 되리라 기대해본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영화평론가〉

나운규는 〈황무지〉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로케이션도 마쳤다고 한다. 아마도 이 작품에는 〈나의 러시아 방랑기〉에서 어린 나운규와 동료들이 탈영해서 찾아간 조선인 마을에서 겪었던 경험이 녹아들어 있을 것이다. 영화로 옮겨지지 못한 시나리오 안에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장면과 동선에 대한 지시까지 남겨 둔 원고는 나운규의 사진들, 영화 출연 장면들, 유품들과 함께 한국영상자료원 1층 한국영화박물관 안에 전시돼 있다.

이 공연을 보면서 영화라는 실체로 볼 수는 없지만 기록으로 남겨진 〈아리랑〉이 얼마나 대단했었을까 새삼 울컥했다. 1926년 〈아리랑〉이 상영되던 당시 상황을 전하는 일화들만 해도 극적인데 영화는 오죽했을까?

나운규가 시나리오, 감독, 주연까지 맡은 〈아리랑〉의 내용은 이렇다. 실성한 청년 영진(나운규)에게는 영희(신일선)라는 어여쁜 여동생이 있다. 실성한 영진을 각별히 여겨 찾아오곤 하는 오빠 친구 현구와 사랑하는 사이인 영희를 악덕 지주집 머슴이자 친일파인 오기호가 겁탈하려 하자 영희를 구하려는 현구와 난투극이 벌어진다. 그러자 실성한 영진이 낫을 휘둘러 기호를 죽이면서 정신이 돌아오지만 일본 경찰에게 살인 혐의로 끌려가게 되고, 그 뒤로 '풍년이 온다/ 이 강산 삼천리에 풍년이 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 주오'라는 가사의 '아리랑'이 울려 퍼지며 끝난다고 전해진다.

나운규는 생전 인터뷰에서 '아리랑'을 주제가로 지은 까닭은 어린 시절 고향인 국경 지방 회령에서 당시 한참 철도를 놓던 남쪽 출신 노동자들이 부르던 노동요가 아리랑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애환을 살리고자 기억을 되살려 직접 지었다고 밝혔으니 아리랑에 담긴 발원이 얼마나 깊고 절절하게 영화와 음악에서 살아났으랴.

식민지 조선에서 영화를 업으로 삼아 생활고와 과로에 시달리다 폐결핵이 심해져 서른여섯의 나이로 죽기 전 쓰고 있었던 시나리오 〈황무지〉는 함경북도 외진 산골 마을 장백촌을 배경이다. 금맥을 찾으러 왔다는 청년 '박'이 학교도 없고, 소금도 귀한 첩첩산중에 터를 잡고 살던 장노인 집에서 신세를 지고 떠났다가 산중에서 사고를 당해 다시 장노인 집으로 오게 된다.

대학까지 나오고도 황무지로 찾아든 청년 '박'이나, 고향 떠나 가족 모두를 이끌고 황무지 일구고 사는 장씨 노인이나, 겨울에 강이 얼어 빙판 위로 나가는 것 말고는 달리 외부로 오갈 길도 없는 황무지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구구절절한 내력 소개하지 않아도 다들 고단했을 사정이 있으리라.

박은 팍팍한 살림에도 사람 귀하게 여기는 장씨 노인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금맥 대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된다. 장씨 노인 딸과의 두근거리는 만남도 좋고, 자기 손자 뿐 아니라 마을 아이들 모두에게 어떻게든 공부를 가르치려는 장씨 노인의 인품도 존경스러운 청년 박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학교를 짓고 더불어 살고자 한다. 그러나 산중에는 아편을 몰래 재배해 파는 밀경꾼 집단이 있고, 그들은 학교가 생겨 마을이 커지면 불법적인 아편 재배가 발각될까봐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방해를 일삼는다. 그런 척박한 황무지에서도 새 생명은 태어나고, 아이들은 자라나며, 사랑도 움트고, 사람도 변해간다.

어지지 않아 그 뒷이야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영화를 업으로 삼아 생활고와 과로에 시달리다 폐결핵이 심해져 서른여섯의 나이로 죽기 전 쓰고 있었던 시나리오 〈황무지〉는 함경북도 외진 산골 마을 장백촌을 배경이다. 금맥을 찾으러 왔다는 청년 '박'이 학교도 없고, 소금도 귀한 첩첩산중에 터를 잡고 살던 장노인 집에서 신세를 지고 떠났다가 산중에서 사고를 당해 다시 장노인 집으로 오게 된다.

대학까지 나오고도 황무지로 찾아든 청년 '박'이나, 고향 떠나 가족 모두를 이끌고 황무지 일구고 사는 장씨 노인이나, 겨울에 강이 얼어 빙판 위로 나가는 것 말고는 달리 외부로 오갈 길도 없는 황무지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구구절절한 내력 소개하지 않아도 다들 고단했을 사정이 있으리라.

박은 팍팍한 살림에도 사람 귀하게 여기는 장씨 노인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금맥 대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된다. 장씨 노인 딸과의 두근거리는 만남도 좋고, 자기 손자 뿐 아니라 마을 아이들 모두에게 어떻게든 공부를 가르치려는 장씨 노인의 인품도 존경스러운 청년 박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학교를 짓고 더불어 살고자 한다. 그러나 산중에는 아편을 몰래 재배해 파는 밀경꾼 집단이 있고, 그들은 학교가 생겨 마을이 커지면 불법적인 아편 재배가 발각될까봐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방해를 일삼는다. 그런 척박한 황무지에서도 새 생명은 태어나고, 아이들은 자라나며, 사랑도 움트고, 사람도 변해간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공화, 병난 눈에 보이는 것
〈空華〉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㊵ 공화(空華)

〈원문〉 "아난아, 이와 같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신선, 천취, 아수라에 이르기까지 칠취(七趣)를 정밀하게 연구해 보면 모두가 혼침한 유위상이라, 망상으로 생을 받아 망상으로 업을 따르거니와 미묘하고 원만하며 밝은 지음이 없는 본래의 마음에서는 다 허공의 꽃과 같아서 본래 붙을 데가 없느니라. 다만 하나같이 허망한 것이라 더 이상 근거가 되는 실마리가 없느니라.

아난아, 이들 중생이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이 윤회를 받아서 무량겁을 지나도록 참되고 청정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살생, 투도, 음욕을 따르기 때문이니라. 이 세 가지를 반대로 하면 곧 살생, 투도, 음욕이 없는 데 태어나니 이름이 있는 것은 귀신의 무리요, 이름이 없는 것은 천취(天趣)니라. 있고 없음이 서로 기울어서 윤회의 성품을 일으키느니라.

만약에 묘하게 삼마제를 발하는 자는 곧 묘하고 항상하고 고요하여, 있고 없음이 없으며, 둘이 없음도 또한 소멸되어 오히려 살생하지 않고, 투도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음도 없으리니 어떻게 다시 살생하고 투도하고 음행하는 일을 따르리요."

〈강해〉 일곱 갈래로 나눠지는 중생의 세계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두가 어둡고 침침한 유위의 모습이라 하였다. '유위의 모습(有爲相)'이란 인연에 의해 생성되어 변화하는 상태라는 말이다. 이 유위의 세계가 망상에서 시작되어 업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본래의 마음에서 볼 때는 허공의 꽃(空華)과 같은 허망한 것이라 하였다. 본래의 마음이란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이다.

부처의 세계에서는 중생의 세계가 허공의 꽃이라는 것이다. 허공의 꽃은 눈병 난 눈에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중생이 윤회를 하지만 윤회를 하는 그 상태 역시 공화(空華)라고 밝혀 놓았다. 다만 업(業)을 가지고 볼 때는 근본 원인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인 살생, 투도, 음행이라 하였다. 업이 지어지면 과보가 있는 것이고 그 업과 과보의 관계가 인과응보(因果應報)라 시간의 선후가 결정되며, 삼세로 이어지게 된다. 십이인연설에도 삼세양중인과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과거와 현재가 한 겹의 인과관계를 맺으며 또 현재와 미래가 한 겹의 인과관계를 맺게 되어 두 겹의 인과관계를 맺고 삼세가 연속된다는 것이다.

윤회라는 말은 시간의 연속성과 공간의 이동성이 종합된 말이다. 흔히 말하는 인연(因緣)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베틀에 올라가 베를 짜는 것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베를 짜는 것은 씨줄과 날줄을 교직시켜 천을 만드는 것이다. 씨줄은 시간을 의미하고 날줄은 공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이 베가 짜이듯이 짜이는 것이 인연이라 했다. 또 중생(衆生)이라는 말의 뜻을 세 가지로 설명하기도 한다. 원래 이 말은 범어 사트바(sattva)를 번역한 말로 현장은 유정(有情)이라 번역하고 구마라습은 중생(衆生)이라 번역하였는데 아직도 중생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다. '중(衆)' 자는 많다는 뜻이고, '생(生)' 자는 태어나 살고 생활한다는 뜻을 가진 글자다.

중생의 세 가지 뜻은 첫째, 태어날 때 수많은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뜻이다. 천지만물의 모든 존재는 연기적 존재이므로 어느 것도 고립독존(孤立獨存)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다. 상호 의존하여 존재하므로 인연이 모이고 쌓아져야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는 세세생생(世世生生)이라는 말처럼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듯이 중생의 한 생 한 생이 다겁다생(多劫多生)으로 계속 이어져 끝이 없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다생설(多生說)이다. 셋째는 너와 내가 어울려 공동으로 살게끔 되어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혼자서는 못산다는 말이다. '중생'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중생이 윤회적인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된다. 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며, 해탈의 필수조건이 본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물론 깨달은 부처의 세계에서는 윤회가 없다. 눈이 피로하거나 병이 나지 않은 건강한 눈에는 공화(空華)가 보이지 않는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마음 거울로 중심을 삼아서…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㊵ 12개의 단

경수부 세수가 끝났으면 흉수부를 씻어 준다. 꼬리뼈까지 숨을 들이쉰다. 마찬가지로 앞 기둥과 뒤 기둥 기점을 함께 가동한다. 흉수부는 12개의 가슴 신경과 2개의 요수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수 2번은 배꼽 반대쪽에 위치한 척추 부위이다. 명문혈이라 부른다.

날숨에 갈비뼈를 타고 호흡의 느낌을 배 쪽으로 끌고 온다. 뻑뻑한 느낌이 배 쪽을 감싸면 제대로 되는 것이다. 반복해서 수련하면 흉부와 배부가 두툼한 에너지로 감싸진다. 갑옷을 입은 것처럼 든든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흉수부 세수가 성취된 것이다. 흉수부 세수가 진행되면서는 다리 쪽으로도 자극이 내려간다. 이는 요수 1, 2번이 씻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 단계는 요수부 세수이다.

요수부는 5개의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1, 2번은 흉수와 함께 연동된다. 앞 기둥 기점과 뒤 기둥 기점을 함께 가동하면서 꼬리뼈까지 나선 호흡을 들이쉰다. 신경이 억제되면 천천히 숨을 내쉰다. 이때 양쪽 요수를 통해 호흡의 느낌을 양쪽 발로 내려 보낸다. 호흡의 느낌이 고관절을 지나갈 때 두두둥 하는 진동이 생길 수 있다. 때로는 엄청난 냉기가 발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요수부 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황하지 말고 따뜻한 기운이 발쪽을 감쌀 때까지 반복한다. 요수부가 세수되면 발바닥이 따뜻해지면서 용천혈 부위에 압력이 형성된다. 에너지가 발쪽에 모이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다음은 천수부 세수이다.

천수부는 6개의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꼬리뼈 끝부분이 천수부 말단이다. 앞 기둥 기점과 뒤 기둥 기점을 가동하면서 백회에서 들이쉰 나선 호흡을 꼬리뼈 끝까지 끌고 온다. 신경이 억제되면 숨을 내쉬면서 천수신경을 자극한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신경이 자극되는 부위를 느껴본다. 꼬리뼈 끝이 시리고 아랫배 쪽에서 냉기가 느껴지고 싸늘한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머리 쪽으로 올라온다. 어떤 경우는 오한이 생겨서 부들부들 떨기도 한다. 그야말로 냉기의 폭탄을 맞은 듯 온몸이 아우성친다. 천수부에는 엄청난 냉기가 내장되어 있다.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된 사람은 이 증상을 더 심하게 겪는다. 천골에 냉기가 모여 있는 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원인이 방광이다. 반복해서 수련하면 냉증이 해소된다. 따뜻한 기운이 천골을 감싸면 천수부 세수가 끝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머리부와 흉부, 천골부의 세수가 이루어지면 한 번의 들숨과 날숨으로 전체 영역을 씻어낸다. 그러려면 충분한 호흡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호흡을 통해 전체 체신경이 세수되면 말초신경의 미세 감각이 다시 살아난다.

12개의 단(壇) 세우기

12개의 단(壇) 중에서 처음 세워지는 자리가 중심(中心)이다. 중심은 명치 위 1cm, 속으로 5cm 들어간 자리에서 세워진다. 선나의 주체이다. 중심이 세워지면 조견(照見)이 이루어지고 삼관이 행해진다. 또한 오장의 순화가 이루어지고 감정의 추업이 제도된다. 중심은 나머지 열한 개의 기점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 앞 기둥의 세 기점 중에 첫 번째 기점이다. 검지를 둘째 마디까지 굴곡시키고 배숨호흡을 길게 들이쉰다. 그런 다음 오~~~~ㅁ! 하고 길게 발성하면서 중심 자리를 울려준다. 중심 자리에서 시작된 소리의 진동으로 몸 전체를 씻어준다. 중심 자리에 편안함이 세워지면 단(壇)이 형성된 것이다. 중심이 세워지면 초선정에 들어간 것이다. 이때부터는 중심을 마음 거울로 삼아서 안팎으로 접해지는 일체의 경계들을 조견(照見)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㊵ 인연(원인과 결과)

결과가 아니라서 원인이 없다

자신의 삶을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가상현실)'에 등장하는 '네오(Neo)'는 자신의 삶에서 흥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낸다. 네오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해커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는 일과 세상일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무엇이 사실적인 삶인지 모르고 헤매는 중이라 의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다 우연히 모피어스(Morpheus)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가상이 아닌 사실을 경험한다. 영화 속에서 표현하는 가상의 세상과 진짜 세상은 그 표현에 흥미로운 점이 있다. 가짜 세상은 몸 어디에도 흠이 없지만, 진짜 세상의 몸은 목 뒷부분에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장치가 있다. 그 연결선이 접합되면 가상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이 진짜 세상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다. 온전히 의심하지 않으면 분간하기가 어렵다. 꼭 기계적인 곳이 가상세계이고, 경험한 곳이 진짜 세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네오도 사실을 목격하고 처음에는 믿지 못한다. 가상세계를 경험하면서 무엇이 사실이고 가상인지를 분간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다.

장자(莊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비가 된 꿈을 꾸다가 깨어난 장자인가?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어찌 보면 우리는 '끝난 일인가(결과)' 아니면 '계속되는 일인가(원인)'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네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바랐지만 그 사실이 나타나자 두려움에 떨며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 네오는 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았는데 두려워했을까? 아마도 가상세계를 알았다는 것보다는 무엇이 진짜인가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 원했던 그 마음으로 일어난 사실에 접근해야 하는데, 그 순간에 원했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온으로 의심을 일으켰으니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온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여 사실을 발견한 것에 환호하지 못한다. 누가 환호하고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른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대부분 마지막 단계에서 사실을 알고도 완전히 환호하지 못하여 큰 앎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아닌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이라고 믿고 있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사실이 아닌 것에 다시 마음을 연결하게 된다. 왜냐하면 가상세계에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이다. 매트릭스에서 배신자가 된 사이퍼(Cypher)는 이런 대사를 한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입안에 넣으면 매트릭스가 내 두뇌에 맛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죠. 내가 9년 만에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 말처럼 수행을 오랫동안 지속하다보면 회의감이 든다. 매트릭스의 삶이 거짓인 줄 알지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 이유는 좋은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모르는 채로 누리면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나타난 마음이다. 현재의 상태를 좋은 것으로, 혹은 나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개념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상태가 좋지?, 왜 지금 상태가 나쁘지?' 하면서 그 이유를 찾게 된다. 네오가 사실을 알고 난 다음, 가상세계에는 원인과 결과가 없고, 오직 그 가상세계에서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의 문제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수행은 가상의 세계를 잘 분간하여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꿈에서 깨어날 때만이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 계속 꿈꾸고 싶고, 꿈속에서 좋은 것과 편안한 것과 만족스러운 것을 찾고 있는 한, 꿈에서 깨어날 수가 없다. 지금 나타난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난 것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을 결과로 생각하게 되면 계속해서 원인을 찾겠지만 그렇게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는 사실을 이유 없이 받아들이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침묵은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사실을 그대로 보게 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57호 | 17 | 전면광고

욕심과 번뇌를 여읜 이는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제법집요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안양
- 2층포교당 : 60평
- 법당(삼존불), 공양간, 종무소, 룸
- 시설비무료인계, 시내, 주차가,
- 보증금 : 1천만원
- 임료:60만원
- 위치 : 경기
- 부지 : 1100평
- 건평 : 약40평 외
- 주차가능
- 매가 : 3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6764-0034

토 굴 안 내

- 진주시 정촌면 무선산로 332 약수암
- 임대시 전세 일천만원
- 권리비 및 시설비 없음
- 매매시 주인 직접

010-4999-562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 가액 : 4억 5천

010-7710-8334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경주시 산내면
- 대지 : 142평
- 한옥 2채 (위채:법당, 아래채), 큰 창고 1동
- 교통편 편리
- 가액 : 1억 8천만원 (절충 가능)

010-9338-1755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2천만원

010-6898-9114

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 근교
- 2층 건물 : 2층 30평
- 2층 옥상 산신각 2평 공실
- 법당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 방사 1, 공양간1, 욕실겸화장실
- 보증금 : 5백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 천만원

010-4799-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법당, 공양간, 스님 거실, 주차장, 창고, 산신각
- 평수 : 253평 (2택지로 나뉘어 있음)
- 금액 : 2억 5천만원 (절충 가능)
- 진주 시내에서 5분 거리 시내버스 주차장 가깝고 버스 다니는 길 있음

055-746-2585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 : 교통이 좋습니다.
- 집기류 다 주고 갑니다. 그냥 오셔서 법회를 하시면 됩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835-173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 옆에 작은 폭포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매매가 : 1억 3천만원 (비품대 미포함)

010-2807-050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입구 3층 (30평) 전철역 10분
- 1천만원 – 월세 130 (부가세별도)
- 시설비 2천만원
- 건물 : 법당, 방1, 공양간, 욕실, 난방도시까스 (민원없음)

010-2855-9899

토굴안내

- 위치 : 영주시 조망이 좋은 곳에 위치해있음
- 대지 : 82평
- 건물 2동(윗채, 아래채), 별채, 마당
- 시책사업 공사완공으로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고 주차장이 넓음
- (전세도 가능 전화문의)
- 가액 : 9천 5백만원

010-5538-55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북후면 산북로 1104-13
- 법당, 산신각, 요사채, 황토방, 미륵입상
- 가격 : 2억 8천만원
집기류는 다 주고 갑니다. 그냥 오셔서 법회 하시면 됩니다. 스님이 연로하셔서 인연자를 기다립니다.

*굿당으로 해도 좋은 자리입니다.

010-9355-17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조양동 대추밭 2길 14-43번지
- 대지 382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산신각, 종각
- 급매 3억 5천만원 (가격 절충 가능)

010-3875-351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대지 : 약 340평
- 건물 : 1, 2층 – 1층 26평, 2층 법당 20평, 요사채 15평(거실2칸, 해우소 3칸)
- 가격 : 상담 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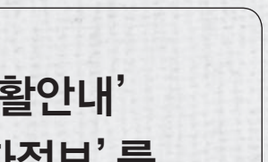
010-8914-1762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57호 | 18 | 전면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생길 것이요,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 곧 깨달음이
생길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民佛宗秘法傳修院

鬼門神功 귀문신공 知止神功 지지신공
六爻神功 육효신공 不立神功 불립신공
※ 다음카페 꼭 참고, 장애스님, 보살무료
Daum Cafe.daum.net/yokhak 역학대통령▼

02-904-3375, 02-907-5858

그린그린심리치유 상담센타

한의학전공 한중역학대학원석사중 철학박사학위중
심리상담사 1급자격증 2011-12-82948호
사업자등록번호576-10-00995호 통신판매업신고증 번호 제 2019-전남보성-00002호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는법
아파서 병원에 다녀도 치유가 안되시는 분, 탈골교정, 구안와사 상담후 치매 완치 100% 세계 최초 치매완치(完治)전문의 [업무 오전 10시~오후 4시]

061-852-1003 / 010-2159-3003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GNN 손도사

책50권 저술출간함
세계1등 운명상담
010-5105-5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비구니스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이상 (연령무관)

010-5049-1533

하나힐링 광물찜질

모든 병은 독소, 염증, 혈관막힘이 원인
1억 파장 양자 음이온 토로말린 파장
암개선, 간, 신장, 척추, 허리, 무릎, 피부, 만성질환, 모든 환자에게 도움
- 1회 15,000원 대림역 10번 출구
- 자연치유 무료 상담

010-4633-8864

뚜렷한 병명도 없이 아프신 분들이나 소원을 꼭 이루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은 연락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토속신앙 지장신앙 산신신앙 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산암행스님은 동양 최초로 각명산의 산신령님을 한분도 빠짐없이 다 모신 제천 심흔사 회주 스님으로써 수십년동안 염불기도로 수행정진해온 원력으로 마지막 회향 기도로 몸과 마음 다 바쳐 혼을 실은 기도로써 부처님 불보살님 산신령님의 위신력을 입증해 보여드리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010-8547-1473,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⑱ 쑥(애엽艾葉)

피 맑게 하고 지혈 도움…혈관도 튼튼하게

쑥은 국화과 쑥속에 속한 여러해살이 초본(草本)으로, '쑥쑥 잘 자란다' 고 하여, 쑥이라 한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역에서도 제일 먼저 싹을 틔운 것은 쑥이다.

쑥의 꽃말은 평안, 행복이며, 다른 이름은 의초(醫草), 구초(灸草), 첨애(艾), 애(艾), 빙대(氷臺), 황초(黃草), 애호(艾蒿) 등이고, 생약명은 애엽(艾葉)이다. 쑥은 참쑥, 사철쑥(인진쑥), 제비쑥, 산쑥 등이 있다.

쑥은 단오날 이른 아침에 쑥을 베어다가 다발로 묶어 대문 옆에 세워두면 여러 가지 액을 물리친다는 속담도 있고, 쑥이 들판에 자라면 옆으로 퍼지지만, 갈대밭에 자라면 곧게 자라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사람의 성장을 비유하기도 한다. 이용부위는 잎과 꽃이며, 식용과 약용한다.

성분과 약성

쑥에는 시네올(cineole 25-30%), 테르피넨-4-올(terpinen-4-ol), β -카리오필렌(β -caryophyllene), 테트라코사놀(tetracosanol), 베타시토스테롤(β -sitosterol), 리날로올(linalool), 캠퍼(camphor), 보르네올(borneol) 등이 있다.

뿌리 및 줄기에는 이눌린(inulin)과 비슷한 다당(多糖), 알테모스(artemose), 폴리엔(polyin) 화합물, 옥시토신(oxytocin)이 있다.

쑥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맵고 쓰며 독이 없다.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어 몸을 따뜻하게 한다. 아랫배가 차서 발생하는 질병에 효능이 있다. 자궁냉병으로 인한 대하증, 생리불순, 불임 등을 다스린다. 덖은 쑥은 지혈하는 효능이 좋아 자궁의 부정출혈에 효과가 있다.

마음 · 기작용

쑥은 비장(脾臟)에 좋은 소음인의 꽃차이다. 〈동무유고〉, 〈동무약성가〉에서 밝힌 애엽(艾葉)의 약성은 '사기를 몰아내고 귀기(鬼氣, 삿된 기운)를 쫓아낸다. 붕루(崩漏, 자궁 출혈)를 낫게 하여 안태(安胎, 태아)시키고, 심통(心痛)을 낫게 한다.(歐邪逐鬼구사축귀 漏血安胎누혈안태 心疼卽愈심동즉유)' 이다.

먼저 소음인의 마음작용(心氣)과 쑥을 보면, 쑥은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또 소음인은 항상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장의 기운을 왜곡시키는데,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비기를 활성화시켜 소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한 걸음 밖으로 나아가 항상 불안정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쑥은 피를 맑게 하고, 지혈작용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데, 이는 수곡량기의 혈해(血海)와 관계된다. 수곡량기는 소장(小腸)에서 유(油)가 생성되어 배꼽의 유해(油海)로 들어가고, 유해의 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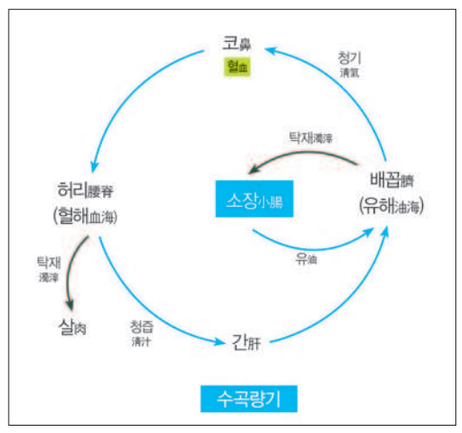


기운은 코로 나아가서 혈(血)이 되고, 코의 혈이 허리로 들어가 혈해가 된다. 쑥은 허리에 있는 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또, 쑥은 대하증, 월경불순 등 부인병을 다스리고, 태아를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는데, 이것도 수곡량기의 혈해(血海)와 관계된다. 쑥은 허리에 있는 혈해의 맑은 즙을 빨아들여 간의 원기를 보익하게 하는 것이다.

제다 및 음용

쑥차의 제다는 ①쑥은 5월 5일에 채취하고, 쑥꽃은 9월 초에 채취한다. ②쑥과 쑥꽃은 깨끗이 씻어서 1cm로 자른다. ③쑥은 고온에서 잘 익히며 덖음을 하여 유념을 한다. ④쑥과 쑥꽃은 저온



에서 덖음과 식힘을 반복하며 덖고, 맛내기 가향을 하여 완성한다.

음용은 쑥차 2.5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또, 쑥꽃차와 아마란스차를 블렌딩한다. 아마란스차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당뇨와 심혈관계 질환에 효능이 있다. 쑥차 블렌딩은 쑥의 따뜻한 성질은 냉대하, 생리통 등 부인병을 다스리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해독작용과 동맥경화, 노화방지에 좋다.

쑥차 2g, 아마란스차 0.9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사상인별 시음

태음인이 마셨을 때, 쑥꽃차의 건향에서는 약초말린 향과 화하고 매운향도 살짝 감돌았다. 우림한 차에서는 화한 향이 나고, 맑은 쓴맛과 회감이 있다. 목 넘김이 좋고, 열감이 있다. 마신 후 시원한 느낌이 입안에 남는다.

또, 속에 열이 있는 태음인이 마셨을 때, 쑥꽃차의 건향은 어릴 때의 쑥향과 맛을 기억하게 한다. 우림한 차의 첫 입맛은 쑥향 맛 그대로 이고, 두 번째 맛은 향기가 먼저 느껴지고 혀에는 매운맛과 쓴맛이 진하게 느껴지면서 더 마시고 싶지는 않았다. 매운맛은 계속 유지되었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우림한 차에서는 은은한 한약냄새가 났고, 시음에서는 목 넘김이 부드러웠고, 입안이 화한 느낌이 느껴졌다. 또 민트향이 입안에 도는 느낌도 있고, 목 안쪽에는 아린 맛도 났다.

또 다른 소음인이 마셨을 때, 첫 잔에서는 입 내부 코끝으로 쑥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혀 중간 부분에서는 약간 단 맛이 났다. 두 번째 잔부터는 정신이 맑아지고, 입을 청결하게 하는 향긋한 느낌이 들었다.

쑥은 소음인 꽃차로 한증 태음인도 잘 맞는 것 같고, 속에 열이 있는 태음인과 소양인은 주의해야 할 듯하다.

참고로 참쑥은 따뜻하지만, 인진쑥(사철쑥)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음인의 열을 씻어내고 서늘하게 하는 꽃차이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건강 365
⑤ 류마티스관절염

조기진단 · 합병증 예방 위한 증상조절 중요

관절염(arthritis)이라는 단어는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인 기원전 400년에 히포크라테스에 처음 기술되었다. 물론 그는 어떤 형태의 관절염인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당시 기록에 의하면 나쁜 액성물질(류마)에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류마티스관절염은 아주 오래된 인간의 질병 중 하나임을 역사 기록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정의

류마티스관절염은 우리 몸속의 면역에 이상이 생겨, 자신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백혈구가 본인의 관절을 공격해서 손, 발을 포함한 온몸의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관절이나 인대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반복적인 염증으로 결국 관절의 손상과 변형을 만들고, 혈액을 통해 염증물질이 돌아다니며 전신 어느 곳이나 침범할 수 있어 다양한 장기에 합병증을 유발하는 전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관절염은 폐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질환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그 발생위험도가 2배 정도 높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원인

면역계 이상에 의한 자가항체의 생성과 동반하여 여러 염증물질의 발현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왜 이러한 자가항체가 생성되었는지 등 정확한 원인이나 위험인자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현재까지는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환경적 인자(trigger)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알려진 환경적 요인으로는 흡연, 치주염,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 여성호르몬 등이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

관절증상과 비관절증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로 호소하는 관절증상은 아침에 더 뚜렷한 손, 발, 기타 관절의 뻣뻣함, 부종, 통증, 열감 등이며, 비관절증상으로는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시림, 저림, 외에도 피로, 전신부종, 전신통증이 있고 류마티스관절염은 근골격계 외에도 폐, 심장, 피부, 신경계 등 다양한 부위를 침범할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

류마티스질환은 같은 진단명에도 환자마다 원인물질이나 발현 증상이 다를 수 있어 대개 여러 가지의 검사를 통해 통합 점수로서 진단하도록 분류기준을 세우고 있다. 류마티스관절염도 초음

관절에 염증 일으키는 질환
신경계 등 다양한 부위 침범
근력 증강 운동 병행해야

파, x-ray 등 영상검사를 통해 침범된 관절의 개수와 증상발생기간, 혈액 중 염증반응물질과 자가항체의 유무와 그 양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 총 10점 중 6점 이상인 경우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한다.

류마티스관절염을 치료

류마티스관절염을 치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증의 완화를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관절 및 비관절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항류마티스약제,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게 되며, 환자 개개인의 질병의 경과나 증상 정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제는 종류나 기간이 다양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항상 환자와 의사의 상의가 필요하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예방

류마티스관절염은 그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의 내과적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진단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 증상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근력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관절염의 발생 및 악화를 예방하는 데 공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 관절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보다는 근력을 증강시키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관절건강에 더욱 효과적이다.

류마티스관절염과 퇴행성관절염의 차이점

관절의 통증이나 부종 등 증상이 비슷하지만, 류마티스관절염과 퇴행성관절염은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가 다르다. 퇴행성관절염으로 불리는 골관절염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 특정관절을 침범, 비대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류마티스관절염은 여러 관절이 동시에 붓고 대칭적일 수 있으며, 대관절보다는 소관절을 먼저 침범하여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모든 환자가 이론적인 경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절의 부종이나 통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조기발견이 중요

고령화시대에서 늦은 나이까지 건강하게 일하고 운동하고 여행하는 것은 공통된 관심사일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뼈와 관절의 건강이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일반인과 동일한 관절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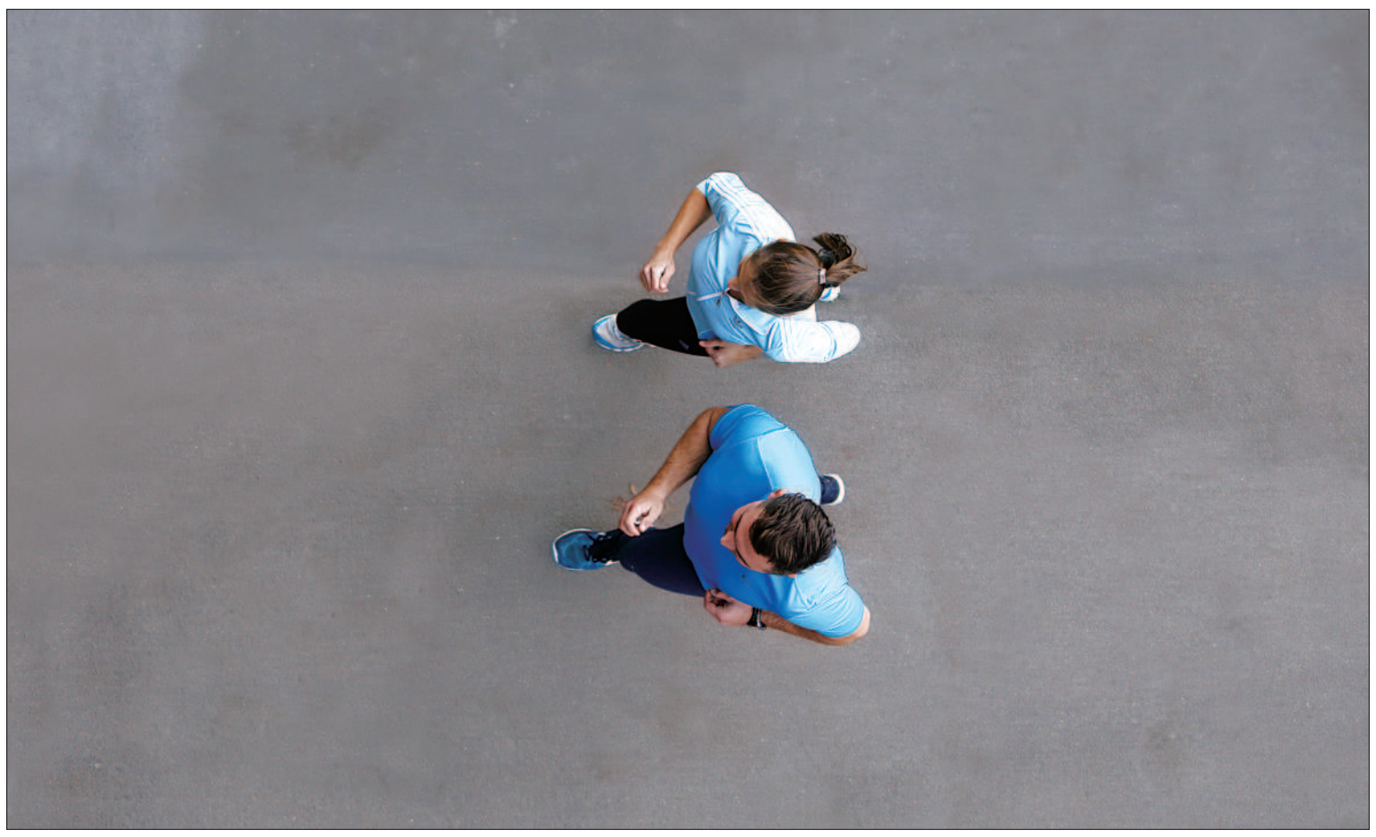
박지혜 내과클리닉 과장



마음책 다시 읽기 명상 100문 100답 ❸ 명상법의 종류 下

▶ 한줄 요약
명상이란 '고요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명상,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간화선은 무엇인가요

간화선은 매우 다양한 불교 명상법 중 하나입니다. 불교경전인 〈대념처경〉에서는 21가지 수행법을 언급하고 있고, 남방불교의 교과서라고도 할만한 〈청정도론〉에서는 40여 가지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화선은 그 가운데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간화선은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뒤, 선불교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선불교는 보리달마를 초조로 하여 성립된 불교 종파입니다. 선불교 전통에서는 다양한 수행법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달마선, 묵조선, 공안선, 간화선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간화선은 공안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간화선은 '화두를 본다'라는 의미인데, 이때 화두란 질문을 말합니다.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이 바로 공안입니다. 간화선은 공안에서 문제만 뽑아서 수행자가 갖고 있는 일체의 관념을 한꺼번에 깨뜨리는 수행법으로, 송대의 대혜 종고라는 분에 의해 확립된 수행법입니다. 대혜스님은 〈서장〉이라는 책에서 묵조수선을 지양하고 간화수선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묵묵히 다만 비추어 본다는 묵조선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은 '깨침'을 강조합니다. 앞서 화두란 문제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푼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이해나 이성을 갖고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주무자(趙州無字)'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이 화두는 어느 날 조주스님에게 한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조주스님께서 '없다[無]'라고 대답한 것을 화두로 한 것입니다. 이때의 '무(無)'란 있음의 반대로서의 무도 아니며, 없다고 하는 무도 아니며, 절대의 측면에서의 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주 스님의 무란 어떤 뜻이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사유방식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추론으로도 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생각이 부정되어, 더 이상 어떤 답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은산철벽(銀山鐵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승이 채찍질로 답을 내게끔 제자를 내몰게 되면, 꽉 막힌 곳에서 답이 하나 터져 나오게 되는데, 이 때 강력한 체험이 수반됩니다. 이 체험의 전과 후는 겉으로는 같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다른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강력한 수행법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명상이 됩니다. 빠알리어 바와나는 한역으로 수행, 수습으로 번역되는데, 영어로는 meditation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명상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명상이란 말이 근대기에 만들어진 번역어이기에 고대 한역에서는 이 말이 쓰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을 많은 명상법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말문 막히는 화두 참구부터
몸을 낮춰 절하는 명상까지
다양한 명상법이 전해지지만
'지금 여기' 마음 두기 똑같아

절 명상은 무엇인가요

절 명상은 불교의 오체투지 예법을 명상에 적용한 것입니다. 오체투지란 몸의 다섯 부위, 즉 이마, 두 팔, 두 다리를 바닥에 붙여서 하는 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절하는 방식은 인도나 티벳 등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큰절 하듯이 하는 것이고, 인도 등지에서 하는 것은 신체를 완전히 뻗어서 바닥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요즘 한국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절 명상은 큰절 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본래 절이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으로, 불교에서는 수행의 한 방편이자, 상대를 존경하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절의 형식이 갖는 의미는 상대방의 발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이마를 발 등에 대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나의 신체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자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상대방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발과 같은 위치로 한다는 것을 인도인들은 최상의 예법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심, 즉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수행의 한 방편이 됩니다. 절을 할 때는 이러한 의미를 마음속에 잘 새겨두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행의 한 방편으로 할 때에는 만 배나 백만 배 등의 횟수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계율을 잘 지키면서 하루에 천 배나 삼천 배씩 정해놓고 며칠간 지속하게 됩니다. 절 명상은 자신의 종교와 연결지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자라면 관세음보살이나 석가모니불, 아미타불과 같이 불·보살님의 명호를 지속적으로 외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혹은 백팔참회문에 따라 참회의 방식으로 절을 응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 접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빠사나가 뭐예요

위빠사나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불교수행법 중의 하나입니다. 불교의 발생과 더불어 2500년이라는 역사를 지닌 이름이긴 하지만, 세상에 널리 소개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빠사나는 한 단어가 아니라 '위(vi)'와 '빠사나(passanā)'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나누다, 뛰어나다, 다양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 '위'와 본다는 의미의 '빠스'라는 어근을 가진 명사형 '빠사나'가 결합된 용어로 '나누어 봄' '뛰어난 봄' 등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빠사나는 '분명히 봄' '꿰뚫어 봄' '특별한 관찰' 등으로 이해되며 통찰, 내적 통찰, 직관적 통찰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빠사나는 수행자의 마음이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머물도록 하여, 현재 이 순간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진행되는 위빠사나 명상은 지금 이 순간 몸에서 나타나는 감각에 마음을 두는 방법, 현재의 마음에 마음을 두어 현재에 머무르는 방법 등 그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위빠사나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현재 이 순간에 머무는 것으로 같습니다.

위빠사나 수행을 위해서는 사마타(samatha)라는 고요함을 키우는 집중수행이 배경을 마련해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조화로운 수행을 강조해왔습니다. 위빠사나를 위해서는 사띠와 지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띠는 계·정·혜 삼학의 정학 안에 포함되는 심리적 기능으로, 대상에 마음을 두어 유지하는 집중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현재 나타나는 대상을 자세히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명상은 뭐예요

요즘 생활명상이란 말들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활명상은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생활명상이라고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명상의 기법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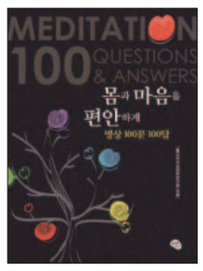
불교에서는 예부터, 행주좌와어묵동정이 모두 수행 아님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그 자체가 수행하는 장소가 됩니다. 굳이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거나, 수련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수행도, 명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활명상의 기본은 생활 속에서 자신이 배우고 익힌 명상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간화선을 하는 경우 화두를 일상생활 속에서 늘 참구하는 것이 되고, 염불을 한다면 생활을 하면서 염불을 지속하는 것이 됩니다. 종교적 측면을 배제한다면 자신의 행동, 말, 생각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먹을 때는 맛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먹고,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는 데에 정신을 집중하고, 친구와 대화할 때는 대화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생활명상인 것입니다.

핵심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최대한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앞의 여러 항목에서도 설명되었듯이,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인정하고 바로 청소에 집중합니다. 밥을 먹다가 화가 났던 상황이 떠오르면 '화가 났구나' 하고 인정하고 법을 먹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생겨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명상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정좌명상이나 호흡명상과 같은 기본 명상에 어느 정도 숙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의 기본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익숙해지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이란 '고요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각의 홍수'에 휩쓸려 다니던 자신을 현실이라는 땅을 딛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몸과 마음의 현상에 최대한 마음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나의 생각/관념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공저 : 박성식(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교수) 외 12명 / 올리브 그린 펴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아름다운 사람들
본방송 수 09:30
재방송 수 21:30 / 목 14:30



김지원의 스님, 계십니까
본방송 목 09:30
재방송 목 21:30 / 화 15:3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본방송 월 09:30
재방송 월 21:30 / 화 23:25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본방송 화 13:00
재방송 화 20:30 / 토 23:15



죽음에서 배우는 삶
본방송 수 13:00
재방송 수 20:30 / 일 22:50



최광식 교수가 알려주는 삼국유사와 불교문화
본방송 목 12:00
재방송 목 22:30 / 토 08:3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57 호 현대불교
2023년 11월 1일(음 9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앞에 닥치는 대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끝 간 데 없이 간다 할지라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마음 자리에 조금도 에누리 없이, 미래도 과거도 없는 오늘에 한자리를 하게 되는 도리, 또 한자리에서 굴리는 도리, 또는 그 멋진 자유권을 가진 한자리의 도리,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을, 내가 그렇게 걸어온 그 길, 문패도 번지수도 없이 걸어온 그 길 말고도 시간과 공간을 따지고 드는 이 현실 세계에서 근 삼십 년 동안이나 이렇게 여러분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조금도 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깨닫고 안 깨닫고 그걸 떠나서 자기를 자기가 진실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약초를 캐는 착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약초를 캐면서도 항상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한 채, 나오면 몇 며칠이 걸리니까, 한 달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마음의 기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약초를 캐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서 아주 몹시 다쳤습니다. 산골에서 다쳐서 내려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엉엉 울었습니다. 울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어느 대선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너 나기 이전 너의 아비는 지금 네가 다친 꼴을 보고 울고 있구나. 아비는 울고 있고 아들은 아파하는구나."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하고 울다가 말고 여쭈니 "바로 네가 생기기 이전의 너는 지금 울고 있는 그 마음이니라. 네 몸이 아파하면 네 마음이 의욕이 없어지는 것도 네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의욕이 없어지느니라. 네가 의욕을 잃지 않는다면 그 아비도 의욕을 잃지 않느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아비는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너 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는 간 곳이 없어졌으니, 그 말을 들은 그 약초 캐는 나무꾼은 그러자마자 일어나도 다리가 안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은 인제는 나무를 하러 다니든 약초를 캐든, 어떠한 짐승이 있든 불쌍한 걸 보든 항상 창문을 통해서, 이 두 눈을 말하는 겁니다. '창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똑똑히 보시고 이것 좀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창문에 지나질 않아. 눈이 아니야.



그림 · 최주현

창문에 지나지 않고 그 창문 속에는 진짜 눈이 있어. 그래서 그 아비의 눈이라고 했어요. 아들은 자기의 눈은 눈이 아니고 창틀이고, 그 창틀 속에는 바로 아비의 눈이 시퍼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던 중 어느 날 부랴사랴 약초를 캐러 또 가다 보니까 덫에, 이렇게 깊이 흙을 파고 선 덫을 놓고 풀을 덮어 놓지 않습니까? 그 풀을 딛고 가다가 산돼지가 그만 거기 덫에 걸렸단 말이야. 그래 빠졌지? 빠졌는데 이 나무꾼이 가다 하는 소리가 그걸 보고 "아버지!" 대답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자기가 그런 겁니다. "저 돼지가 덫에 걸려서 저렇게, 저 생명도 생명이거늘 어찌 그냥 보고 가겠습니까. 보지 못했다면 모르지마는." 하니까 "그럼 네 맘대로 살려 주려무나."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이렇게 자기가 또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저 떨어진 나뭇가지 기다란 걸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거기에서 그걸 밟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산돼지는 사람도 잡아먹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산돼지더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너를 살려 줬거늘 앞으로 네 모습을 벗고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해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돼지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는 그 후에 산에서 으뜸가는 맹수인 사자가 됐습니다. 사자가 됐는데도 글쎄, 돼지는 그때의 그 나무꾼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모습을 바꿔서 맹수가 됐는데도 그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그 나무꾼에게 바쳤다는 얘깁니다. 그건 뭐냐? 그 나무꾼을 못 잊은 그 마음과 이 맹수의 마음은 항시 둘이 아니어서 그만 이 모습도 벗고, 이 모습을 벗으니까 아주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대인이 됐다는 얘깁니다. 대인이 돼서 어진 정승으로서 중생들을 많이 제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딴 데 있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또는 어딜 다치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이런다면 살 의욕이 없어지는 듯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참 내 가슴이 아플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만 고치는 게 부처님 법인가?" 이러지마는 그게 아닙니다. 보석이나 뭐나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무 의욕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얼마나 묘합니까? 그러니 자기 몸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야, 몸뚱이가 좀 아프다고 하면 그 마음은 얼마나 의욕이 없어지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이러는지 모릅니다.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모두. 얼마나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나.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프면 서로 같이 아파 주고 울면 같이 울어 주고 의욕이 없어 하면 같이 의욕이 없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서, 자기를 자기가 업신여기고 못 믿고 따르지 않고 이러면서도 저 먼 데 부처님이 계시다 하면 만날 그냥 '부처님, 날 좀 도와주시오. 이 몸 아픈 것 좀 낫게 해 주시오.' 하고 빌곤 합니다. '우리 남편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잘되게 해 주시오. 자식 잘되게 해 주시오. 나 몸 좀 안 아프게 해 주시오.' 하고선 빌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멉니까, 그게?

나에게 참 사랑하는 바로 내 자부처가, 자신(自神)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일체 신이 바로 한마음에 계신 거를 알면서도 그것을 못 믿고 그렇게 빙빙빙빙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내 몸과 내 가정 또 내 국가, 사회 이런 거를, 내 자식을 어떻게 길러 나가면서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까? 지금 현재뿐만 아닙니다. 세세생생에 끝 간 데 없이 말입니다. 끝 간 데 없이, 수억겁 광년이라 할지라도 일 초에 달한다는 얘깁니다.

요기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는데, 천칠백 공안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럼 화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어저께도 생각하지 말고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걷고 돌아가면서 생활을 할 때에 몇 가지 생각이나 하십니까? 생각도 많고 가지가지 일도 많고, 사람의 살림살이는 말도 많고, 저 별이 수효가 없듯이 인간의 살림살인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갖가지로 고정됨이 없이 그렇게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갖가지로 많은 것이 수차에…, 우리가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볼까요? 다섯 가지로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올해는 굴왕신이 들었다. 나는 업보가, 인과응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많다. 참, 업보가 많아서 짊어진 채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있다고 합시다. 달수가 있고 햇수가 있고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을 타지 못해서 이렇게 가난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병고 액난에 끄달린다. 이런 게 다섯 가지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가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다섯 가지로 표현한다면.

아, 이게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굴왕신이나 삼재나 이런 것도 무슨 내놓을 것이 없는 겁니다. 삼재가 들었다는데 여러분이 내놓으신다면 내가 삼재를 톡톡 다 털어 드리겠어요. 업보가 많으시다면 가져오세요, 내 털어 드릴게. 병고 액난이 많다면 가져오세요, 털어 드릴게. 굴왕신이 들었다면 털어 드릴게요. 그거 다섯 가지만 비유한대도 우리가….

☞ 22면으로 계속



어떤 걸 제일이라고 내세울게 없는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한마음이라는 거는 체가 없어서 한번 훌떡 넘어간다면 일 초도 걸리지 않아. 그렇다면 굴왕신이나 업보라든가 병고 액난이 그렇게 고정되게 나에게만 딱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박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그 병고 액난을 다 겪어야 합니다. 팔자 운명을 다 겪어야 돼. 그리고 삼재팔난을 다 겪어야 돼.

그러나 그 마음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고정된 게 아닌 것이 공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훌떡,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여길 지금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시다가 고정되게 딱 서서 있었습니까, 굴왕신이 들었다고? 또 병고 액난이 들었다고 거기 꼭 고대로 서서 있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듯이 한 발짝 떼 놓으면 굴왕신 그 한 구절이 훌떡 넘어져. 이게 바로 한생각에 그 굴왕신이 그냥 뛰어 넘어진다는 겁니다. 은산철벽이라 그러는 것도 그 한생각에 달렸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발 떼어 놓을 때 그건 벌써 고정되지 않으니까 거기 닿지도 않았어. 굴왕신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을 정도로 휘딱 뛰어넘었다. 또 한 발자국 뛰어넘었다. 그러니 뒤도 벌써 한 발짝 뛰어넘었으니까 뒤도 없지, 앞은 가지 않았으니 없지. 이거는 그저 신발 밑에, 발밑에 그저 그냥 훅딱훅딱 훅딱훅딱 뛰어넘었으니 무슨 팔자가 거기 담기며, 거기 붙었으며, 삼재팔난이 거기 붙었으며, 또는 굴왕신이 거기 붙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아주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세요. 간단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쉽고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해서 중생이다' 이런 생각도 마시고,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의 그 뜻을 믿는다면, 믿는다면 모든 걸,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 저거 그냥 보고 가겠습니까?" 한다면 그냥 보고 못 가고, 저거 그냥 보고 간다 이러고 그냥 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미지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맛을 보지 못해서 그러시는데 요렇게 한 접시에다가, 요것도 표현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와 똑같은 얘깁니다. 접시에다 갖은 과일을 다 깎아 놓았습니다.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포크냐, 이거냐?" 하니까 "포크도 아니고 이 과일도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데서 내가 먹고 싶을 때 탁 꽂아서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것 꽂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래 먹고 싶을 때에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바로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는 것을 바로 이 먹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내 앞에 병고가 닥쳤으면 닥친 대로 그냥 그저 몰락 넣어 버리고 태워 버리고 마는 겁니다. 몰락 넣어 버려! 몰락 그냥! 뛰어넘어! 뛰어넘으면 되는 거라. 사과 깎아 놓고 배 깎아 놨으면 하나 뚝 찍어서 먹어 버리면 그만인 거라. 그러고 또 배 먹고 싶으면 배 찍어. 또 먹어. 과일이 없으면 또 고만둬. 그렇듯이 생활하면서 나한테 닥치는 대로 놔 버려라 이거야. 용광로에 넣어 버리듯이 넣어 버리면, 놔 버리면 그것이 바로 공부가 참 진실하게 돼서 앞으로 참나에게 그 무궁무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전자에도 나는 그런 소리 가끔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빚을 많이 졌으면 우리 식구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빚을 갚으려면 이렇게 계발이 돼야 하고, 이렇게 물리가 터져야 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서의 한마음이 돼 주고, 이렇게 마음을 조절할 줄 알고 서로 한마음이 돼 줄 줄 알아야 된다. 이래야만 우리나라가 좀 더 나아진다. 그리고 풍족해지고 빛도 갚아진다. 이것은 누구나가 하는 말이지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된, 진실하게 현실로 나오게끔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말이 법입니다. (중략)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고 하시겠죠? 우리가 물질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질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이 됐다 할지라도 물질로써 한다는 거는 물질을 죽이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을 죽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냐!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 드린 걸 한번 참작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일체제불의 마음도 둘이 아닌 까닭에 여기저기 부처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은 한마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는 아니 될 겁니다. (녹음 안됨) 여러분이 참 그 뭐, 요새 금강댐을 한다 어쩐다 이런 것도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서 우리 마음이, 일체제불이 한마음 한뜻이라면 어찌 남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누구를 해하지 않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말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래도 이건 법이 되지 않는 법. 그러니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는 것 일부러 잡아서 할 생각 하지 말고, 또 내가 이 공부를 잘해서 아주 부처가 다 됐다고 뻐길 것도 없고.

그러니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돌아가는 이런 멋있는, 끊임없는 생사윤회에 걸리지 않고 돌아가는 이 마당에서 어떤 발자국 떼어 놓을 때, 어떤 과일을 먹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과일을 먹었는데 이것이 제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 법은 어떠한 걸 제일이라고 내세울 게 없는 게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 시시각각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조절하고 환경에 따라서 모든 걸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 마음으로 금방금방 자기의 그 가환도 금방 떠넘겨, 그냥. 자꾸 그걸 붙잡고 늘어지고, 그걸 붙잡고 '이걸 어쩌면 좋은가? 이거를 낫게 해 주시오. 이거를 해결해 주시오.' 그러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놈의 게 넘어가지 않지 않나. 그냥 몰팡하게 내버려. 내버려. 모든 걸 용광로에다 넣어 버려요. 그런다면 바로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서 그게 나와요.

부처님 법이 경전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전에 있는 부처님 법이 딱딱하고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급하니까. 우리 지금 국내에서도 급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도리를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이걸 떠나서 진실히 자기를 믿고 자기한테다가 맡겨서 '모든 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으니까.' 하고 믿기만 한다면 그거는 뭐든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조그만 거 큰 거 따지지 말고, 남의 일이든 자기 일이든, 얘기는 바깥으로 말고 속으로만 알고 자꾸자꾸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 국내의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씀해 드린 거를 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 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지금 말로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현실로서 지금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자꾸 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어저께도 얘기하고 갔지마는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분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실험을 통해서 자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멋집니다." 이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어째서…. 난 나쁘다곤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상에 반찬을 놓을 때 종지도 있어야 쓰겠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지도 부처인 것이죠. 작고 큰 게 없어요.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다. 나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아주.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크고 작고 그런 게 없는 반면에 여러분은 급한 대로, 앞에 닥치는 것대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인이 되시라는 얘깁니다. 자유인이 되시라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못 믿습니까? 자신의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수만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마음이 참 싱숭생숭한 사람도 그 마음만 잡아서 나한테다가 딱 집어넣고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밀어 준다면 그것도 빠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멋있는 자유인으로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이 멋있는,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법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그 법이,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는 거는 여러분에 달렸습니다.

그것을 체험해 보고 실험해 보신 분들은 "참으로 생활해 가면서 그걸 실험을 통해서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아, 자기가 거기 있더군요." 합디다. 누구도 모르는 거. 보이지도 않는 거. "있는 걸 그러면 내놔 봐라." 그랬더니 아주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데요. 허허허. 그래서 듣기 좋았습니다. 새소리가 나고 봄에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이것이 바로 공생을 하면서 공용을 하는 공음파를 보내고 주고, 이심전심으로써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못 믿고 자기 자신을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힘이 없어, 중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인공, 한마음이시여.' 하면 일체가, 전체가 그 한마음 속에 다 들어 있는데 원력이 얼마나 무쌍합니까? 마음이라는 건 내놓을 게 없고 체가 없기 때문에 그 무전자의 이치는 유전자로 통해서…, 또는 형상이 되죠.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로 돌아가는 이 멋진 마음, 이 멋진 아름다움, 멋진 법. 한 번 치면 그냥 딱 잘라지는 거. 잘라지면서도 잘라짐이 없는 그 멋진 법. 여러분이 이 무서운 법이면서도 자비스러운 이 법을 참, 생각해 보시면 여간 좋지 않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좋았던지, 배꼽 있는 데를 훌렁 뒤집어 놓으려면 뒤집어 놓고 제껴 놓으려면 제껴 놓거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 예전에 우리 토끼치기 했죠? 요만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되고,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되고 손가락 하나 없어도 이 마음의 막대기 하나만 갖는다면, 한 나라를 이렇게 하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도 해. 그러나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질 않는 반면에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리가 될 수도 없고요.

아까 그냥 대충대충 말했는데 지금 시급한 문제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지금 국내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국내의 모든 문제점을 우리가 마음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힘을 들여서 아이고, 그걸 생각을 하고 꼬집어서 생각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한번 생각나걸랑은 이렇게 한번 해서 딱 맡겨 놓는, 집어 놓는 거면 그냥 그것이 다 해결을 하니까요. 컴퓨터처럼 말이에요. 우린 자연 컴퓨터, 자연 천체망원경, 영사기, 탐지기 또 전체 무전통신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진통이라 하면 책정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오온의 수레바퀴를 굴릴 수 있다는 요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마음의 도리를 의심치 말고 믿으십시오.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믿으시면서 거기다가 일체를 다…. 들이고 낸다는 건 거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저 빗장을 쥐지 않는다면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뭐, 길게 말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고 또 짧게 말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니 심사숙고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가정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또 회사에서도 그렇고 장사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가고 오면서도 그걸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 보실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 환경에 따라서 내 앞에 병고가 닥쳤으면 닥친 대로
> 그저 몰락 넣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 몰락 넣어버려! 몰락 그냥!
> 뛰어넘어! 뛰어넘으면 되는 거라.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11월 2일 일반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전쟁과 평화 그리고 불교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이-팔 충돌, 인간 어리석음 확인
종교와 민족 분쟁이 갈등의 원인
신념 신화화된 종교, 민족 고위험
종교, 정치 엘리트들 이를 이용해

불교, 폭력을 삼독심 내면화로 봐
故박이문 교수 "자비는 보편 윤리"
자비 윤리, 도덕적 갈등 조율 가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무력 충돌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을까를 가늠하게 한다.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참상과 비극은 우리의 가슴 저리게 만든다. 이번 무력 충돌은 5차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크며, 제3차 세계대전은 중동전쟁의 확대에서 온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가자'는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서 〈구약〉에 나오는 삼손이 활동한 곳이라고 한다. 가자는 바로 셈족의 땅이다. 셈족은 구약의 창세기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노아의 장자 '셈'에 기원하며, 아브라함 계통의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셈족에서 나왔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동 사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나 제일 큰 원인은 종교이고, 이 종교가 민족 정체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종교와 민족이 하나의 신념체계로 신화화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종교의 믿음 체계와 정치 이념은 그 구조와 기능면에서 같은 성격의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

정교분리의 개념은 계몽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온 선언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만큼 종교와 정치 이념의 결합으로 인한 폐해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와 정치 엘리트들은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집단 정체성을 유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갈등과 폭력의 마당으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붓다의 가르침이 있다. 불교의 가르침은 '폭력'을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심(三毒心)이 내면화 된 상태로 보고 철저히 거부한다. 공격성은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 자아를 보호하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숫타니파타〉에 표현된 붓다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그 소망을 보자.

"죽이려고 투쟁하는 사람을 보라. 무기를 손에 들고 다른 이를 치려고 하는 데에서 두려움이 시작되었다. 내가 겁에 질려 폭력을 멀리 떠나게 된 충격을 말하리라. 물이 말라가는 연못의 물고기처럼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광경을 보고 서늘한 공포가 내게 일어난다."

"저들은 나와 똑같고 저들도 똑같다고 생각하여, 나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서 결코 다른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위의 경전 내용은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살육의 현장이 바로 '물이 말라가는 연못의 물고기 상태'이고, 이를 구제하는 방법은 '내 입장으로 바꿔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자비 윤리이다, 이미 타계한 철학계 원로 박이문 교수는 저서 〈자비의 윤리학〉을 통해 유교의 인(仁)과 기독교의 사랑을 빼고 자비를 보편 윤리의 덕목으로 내세운다. 그 이유는 자비의 윤리는 도덕적 판단이나 결정의 독단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비의 윤리는 도덕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이라는 것이다. 불완전한 인간 존재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타인에 대한 자비가 바탕이라는 것이다.

영국의 선더랜드대학의 피터 하비(P. Harvey) 교수는 〈불교윤리학 입문〉에서 '전쟁과 평화'라는 독립된 장을 만들어 갈등 해결과 평화를 위한 불교 경전 내용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불교의 전파 과정에서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예에서 나타난 성전 개념은 없다. 자비와 비폭력은 불교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근현대에 이르러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제국주의에 협조한 일본불교의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 한국사회도 깊은 갈등의 용광로에 빠져 있다, 상을 넘어 상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아득하다.

社 說

부석사 관음상 판결은 '반역사적'

도난·약탈문화재 관련 국제 규약 무시한 판결
'비상식적 판례'로 향후 환수운동 악영향 예상
정부·사법부 스스로 '역사의 죄인'임 인지하길

결국 서산 부석사의 관세음보살님은 부석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현해탄을 건너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0월 26일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부터 관음상을 놓고 이어진 7년간의 법정 공방은 부석사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1330년 부석사 불상을 조성했다는 복장 결연문을 토대로, 고려 말기 왜구들의 약탈에 대마도로 옮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한국인 5명이 대마도 사찰에 침입해 관음상 등을 훔쳤고, 이후 인터폴 요청을 받은 한국 경찰이 절도범 일당을 검거했다.

원소유주가 부석사임이 확인되며 서산 부석사는 2013년 '부석사 금동관음보살 제자리봉안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에 불상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곧바로 받아들여졌다. 2015년 7월 소유자 주장이 없던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만 일본으로 돌아갔고, 부석사 관음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남았다.

이후 서산 부석사는 2016년 정부를 상대로 관음상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월 26일 대전지법은 "정부 보유 관음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며, 인도 집행 정지 신청을 낸다. 이후 대전지법은 검찰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다시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문제가 됐던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권리 주체임은 인정했지만, 소유에 대한 준거법은 일본 민법에 적용된다고 봤다. 대마도 관음사가 1953년 관음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년이 지난 1973년 일본의 민법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이 상실됐다는 게 대법원의 주된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에 불교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패륜적 판결"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조계종은 대변인 우봉 스님 명의의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반역사적 최악의 판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불교계의 성토는 근거가 충분하다. 1995년 채택된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사법통일국제연구소 협약' 5조에는 "협약 국가 간에 취득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반출 문화재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1970년에 채택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7조에도 불법 반·출입 문화재의 회수 및 적절한 반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난 및 약탈문화재에 대해서 여러 국제 규약에는 반환의 당위성과 원소유자의 당연한 권리를 명시했지만,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이를 무시한 판결을 내려 관세음보살님을 다시 약탈의 주체인 일본으로 보내버렸다. 이는 불자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다. 나아가 약탈 문화재 환수에 있어서 국제 정서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역사적인 선례를 남긴 역사의 죄인이 됐음을 정부와 사법부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환지본처는 좌절됐지만,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환지본처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길 바란다. 또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도난·약탈 성보의 환수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고려국 탐라 대표사찰 '묘련사지'

어느덧 햇살에 등을 기대는 계절이다. 그 햇살이 신비로운 곳이 광령리이다. 지금은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다' 하여 광(光)이요, '주민이 밝고 선량하다' 하여 령(令)이라고 하지만, 이원진의 〈탐라지〉에서는 '광령(光靈)'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마을의 '절동산'에 자리한 향림사 경내에는 샘이 있다. 이 샘을 절물로 부르는 것은 이전에 영천사(靈泉寺)란 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제주목 관아에서 서쪽으로 25리에 있다"라고 한 묘련사지가 아닌가 싶다. 묘련사지의 위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증보탐라지〉에는 "애월읍 곽지리 서쪽"이라 했으나 거리가 40리가 넘는다. 〈북제주군의 문화유적〉에서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774번지(대각사) 주변 일대를 묘련사지로 보고 있다.

고려 말기 강진 백련사 혜일 선사는 "황량한 남쪽 이곳 날씨는 맑다가도 자주 흐려지는데/ 오늘 저녁은 맑게 개어 나그네 마음을 맑혀주네/ 한 조각 꿈인 인생이야 피고 지겠지만/ 한가위 달빛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멀리 내다보니 아득한 안개 속 물가는 확 트였고/ 비낀 달그림자 침침한 죽실에 드리워/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오히려 맑아지니/ 저절로 시가 솟아나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네"라고 묘련사를 노래했다. 이러한 정취를 담고 있고, 기록된 거리상으로 보아 지금의 향림사 주변이 묘련사지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원(東院)인 보문사지에 보문촌이 있었듯 서원(西院)인 묘련사에도 광령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론된다. 이 묘련사에서 제주 최초의 목판 판각이 이뤄졌다.

순천 송광사의 〈조계산송광사사고〉와 조선고적연구회의 〈순천송광사장고려판천순판불전〉에 의하면 이곳 묘련사에서 '금광명경문구' 판각이 이뤄졌음이 확인된다. 이 판본 끝에는 "원정 2년(1296년) 고려국제주묘련사(妙蓮社)에서 폭포사주지 안립이 주도했다"라고 기록돼 있다. 여기서 '고려국'라는 문구는 이 판본이 국간(國刊)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을 쓰는 등, 고려가 원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때이다. 1294년 원세조가 죽고 성종이 즉위하면서 충렬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탐라국을 고려에 돌려준다. 1301년에는 탐라총관부를 폐지하여 탐라군민만호부를 세웠다.

이와 함께 충렬왕은 원찰로 개성에 묘련사를 창건해 신행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절은 천태사상을 선양하는 중심사찰로 천태종의 결사도량인 백련사(白蓮社)의 분원 역할을 맡아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호국삼부경의 하나로 참회하는 법, 업장 소멸, 사천왕에 의한 국가 보호, 불법을 보호하는 국왕의 공덕, 이 경을 설하고 독송하는 이의 공덕에 대해 설하는 금광명경을 판각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인지 제주 묘련사도 절(寺)이 아닌 결사(社)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백련사의 혜일 선사가 탐라국을 돌아보고, 제주 묘련사에서도 금광명경을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서 〈탐라지〉에 묘련사에서 제주목관아의 종을 주조했다고 한다. 이 같이 제주 묘련사는 목판 판각뿐만 아니라 철 주조 기술까지 갖추고 있던 탐라의 대표사찰 중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제주 선래왓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그레이블랙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87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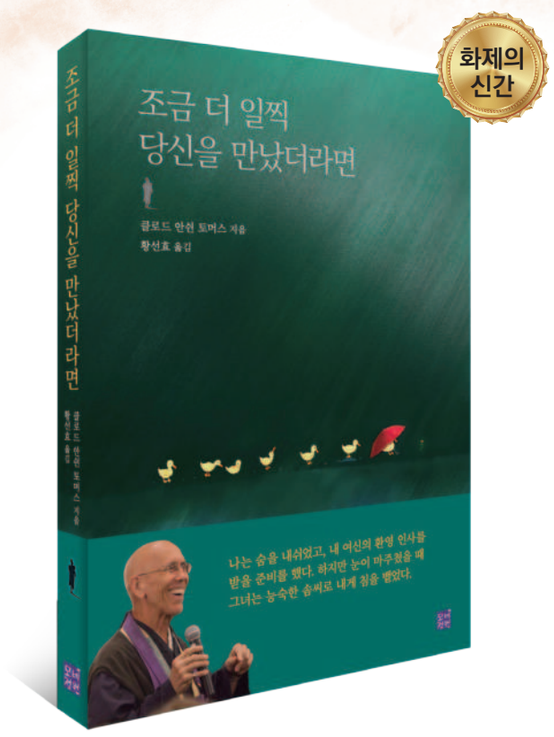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